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항목별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고 성 일

2019年 8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항목별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임 화 순

고 성 일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고성일의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6월

<목 차>

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
1. 개요	5
2. 농촌마을 관련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7
3. 추진체계 및 현황	18
4. 선행연구	31
제2절 AHP분석	35
1. 개요와 특징	35
2. 평가 방법과 유용성	40
3. 선행연구	44
제3장 연구의 설계	46
제1절 자료수집	46
1. 표본설계	46

2. 자료수집	47
제2절 분석방법	48
1. 분석방법	48
2. 분석절차	49
제4장 분석결과 및 해석	52
제1절 평가체계 개발	52
제2절 AHP 중요도 분석 결과	56
제5장 결론	86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8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90

<표 목 차>

<표1-1> 연구 흐름도	4
<표2-1> 1970년대 내무부의 농촌개발정책	8
<표2-2>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	9
<표2-3>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부문별 사업내용	11
<표2-4> 문화마을 사업내용과 사업규모	12
<표2-5> 신활력사업과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비교	14
<표2-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과제별 사례	15
<표2-7>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20
<표2-8> 제주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27
<표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34
<표2-10>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	42
<표2-11> AHP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45
<표3-1> AHP분석 대상 지역과 설문 대상자	47
<표3-2> AHP분석 설문비율	47
<표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예시	52
<표계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예시	53
<표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중요도 평가항목 계층 구분	55
<표4-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요도 분석결과	57
<표4-4> 지자체 및 공사 담당자 중요도 분석 결과	64
<표4-5> 전문가 중요도 분석 결과	77
<표4-6> 지역주민 중요도 분석 결과	78
<표4-7> 주체별 사업분야 중요도 총괄표	85

<그 립 목 차>

<그림2-1>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체계	13
<그림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19
<그림2-3> 2010~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분포 현황	21
<그림2-4> 2015~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분포 현황	22
<그림2-5> 서귀포시 수망리	28
<그림2-6> 제주시 장전리	29
<그림2-7> 서귀포시 가시리	29
<그림2-8> 서귀포시 신흥리	30
<그림2-9> AHP의 일반적 절차	37
<그림2-10> 의사결정의 구조화 단계	40
<그림2-11> 의사결정 사항 계층화	42
<그림3-1> 연구체계도	49
<그림3-2> AHP 분석 진행절차	50
<그림4-1> 중요도 Hierarchy 모형	54
<그림4-2> 전체 그룹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56
<그림4-3> 전체 그룹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58
<그림4-4> 전체 그룹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58
<그림4-5> 전체 그룹 지역소득증대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59
<그림4-6> 전체 그룹 지역경관개선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50
<그림4-7> 전체 그룹 지역역량강화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60
<그림4-7> 전체그룹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60
<그림4-8> 전체그룹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61
<그림4-9> 전체그룹 세부사업(SOC 정비) 중요도 결과	61
<그림4-10> 전체그룹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62
<그림4-11> 전체그룹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62

<그림4-12> 지자체 및 공사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63
<그림4-13> 지자체 및 공사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65
<그림4-14> 지자체 및 공사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	65
<그림4-14> 지자체 및 공사 지역소득증대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66
<그림4-15> 지자체 및 공사 지역경관개선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66
<그림4-16> 지자체 및 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67
<그림4-17>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67
<그림4-18>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68
<그림4-19>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SOC정비) 중요도 결과	68
<그림4-20>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69
<그림4-21>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69
<그림4-22> 전문가 그룹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70
<그림4-23> 전문가 그룹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72
<그림4-24> 전문가 그룹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72
<그림4-25> 전문가 그룹 지역소득증대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73
<그림4-26> 전문가 그룹 지역경관개선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74
<그림4-27> 전문가 그룹 지역역량강화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74
<그림4-28>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74
<그림4-29>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75
<그림4-30>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SOC정비) 중요도 결과	75
<그림4-31>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76
<그림4-32>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76
<그림4-33> 지역주민 그룹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77
<그림4-34> 지역주민 그룹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79
<그림4-35> 지역주민 그룹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요도 결과	79
<그림4-36> 지역주민 그룹 지역소득증대 중요도 결과	80
<그림4-37> 지역주민 그룹 지역경관개선 중요도 결과	80

<그림4-38> 지역주민 그룹 지역역량강화 중요도 결과	81
<그림4-39>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81
<그림4-40>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82
<그림4-41>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SOC정비) 중요도 결과	82
<그림4-41>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83
<그림4-41>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83
<그림4-44> 종합분석 중요도 결과	8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시범농촌건설사업, 새마을 운동, 정주환경 개선사업,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등 1990년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1993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업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한미 FTA 협상과 칠레 자유무역 체결 등으로 농촌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졌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농촌지원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과 투자에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낮은 생산성, 소득의 불안정,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주민참여’와 ‘종합개발’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오현철, 2016).

2000년대까지 농촌지역의 낙후된 기초인프라 시설을 개발시키는 H/W중심의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나, H/W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정책성과가 저조하였으며, 200여개의 유사·중복사업이 분산투자 되는 등의 예산 낭비가 지적되었다.

또한, H/W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에 대한 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으며, 상향식 개발사업 이라고는 하지만, 중앙부처의 예산 제약을 받거나, 중앙부처 주도로 지역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오현철, 2016).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 재량권을 더 강화시키는 포괄보조금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 특별 발전회계로 2010년 정부의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방침의 변경은 기존의 하향식·획일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업분야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

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마을의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농촌지역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수립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이라 그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처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집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각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중요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농촌마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학술연구는 농촌경관계획수립과 경관사업의 위상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수현, 2019),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내용분석 :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진연주, 2014),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 성공사례연구(이진희, 2013a) 세계자연유산마을 특성화 연구-제주 선흘리 마을을 중심으로(이진희, 2013c),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분석(안중호, 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박수진, 2013),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이진희 2017b), 제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웃뜨르권역과 판포권역을 대상으로(이진희, 2018c),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 분석(채종훈, 2010)등으로 대다수의 연구가 성과와 사업 이후의 문제점 분석, 만족도, 사례 연구로 사업 시행이전의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이후 시행되어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전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사업 완료지구 현장을 점검하여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활용 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목표달성과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각 사업별 중요도를 평가하여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들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와 농촌마을, 그리고 수탁기관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여 각 대상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각 대상별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행하게 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물론 이와 유사한 농어촌마을의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본 연구의 중요도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국비와 지방비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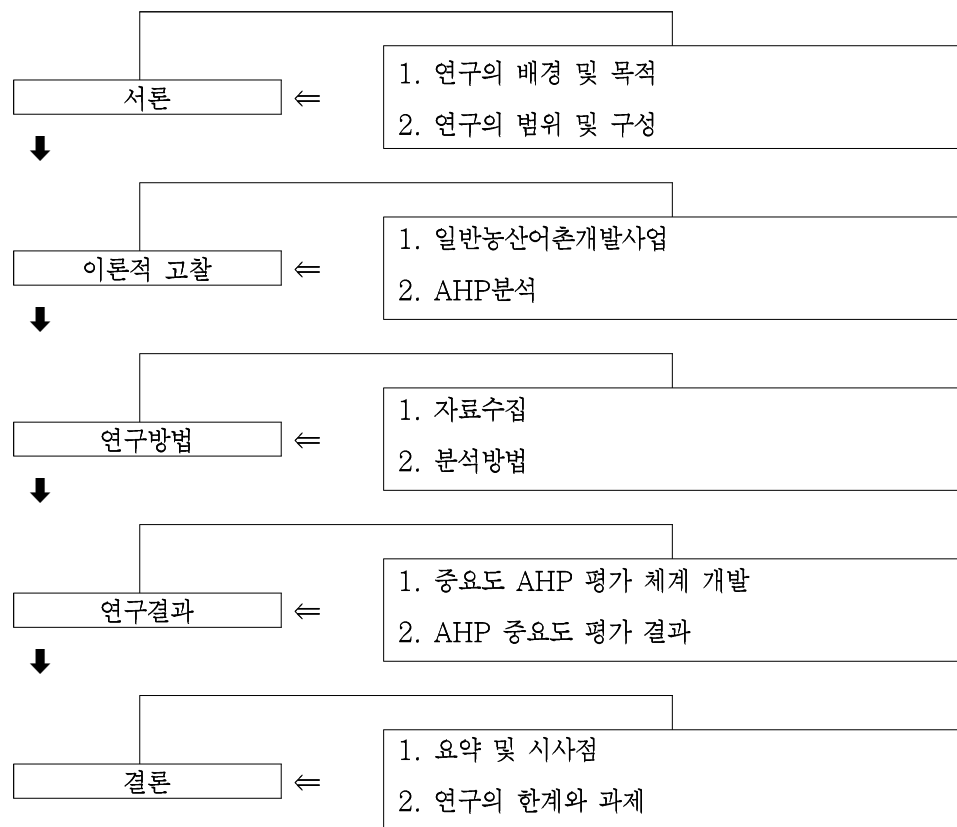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그간 진행해온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 및 공사, 사업 계획 주체인 전문가, 사업 운영·관리 주체인 지역주민,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적 범위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각각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분류의 주체들의 응답을 통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운영·관리 단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각각의 대상이 중요시 여기는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공간적 범위로서 설문 대상 지역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총 6개 지역에 걸쳐 실시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18년 사업을 시행하였던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총 5장으로 구성된 본 연구에서는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체계 및 현황,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분석방법인 AHP분석의 개요와 특징, 평가방법과 유용성,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 부분으로 표본설계, 자료수집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분석방법과 분석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업항목별 중요도 AHP 평가체계를 개발하였고, 이에 따른 AHP 중요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정리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표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고찰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 개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이 가진 특징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주민,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비전과 발전목표와 발전 전략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수립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과 새마을 운동 등의 전개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었다. 농어촌의 새마을 운동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기본으로 시작되었는데 지붕개량,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도로 확충, 하천정비, 전기·전화 보급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체하고 담장보수와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 등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고도성장 시대의 농업위주·마을단위 농촌개발 방식이 가져온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이를 가능케 하는 틀인 정주생활권 전체 즉 배후지인 농촌마을은 물론 중심지까지 포괄하는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주생활권 개발전략’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1985년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군 단위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재원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수립만 추진되고 개발사업이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지역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농어촌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공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1990년 4월 제정·공포되면서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면 정주생활권 개발'의 계획수립과 시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면 정주생활권 개발'과 함께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하여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농어촌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집단마을 조성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그 이후 199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1998년 이후에 착수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기존 마을의 도로포장, 상하수도 개선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규모 신규단지를 기존마을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지역 개발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시작되었고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에 의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여건 및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코자 농산어촌의 기초 생활여건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농촌마을 관련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농촌마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전개과정은 시대별로 해방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그리고 1970년대 이후는 10년 주기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의 농촌마을과 관련된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에 시행되어 온 농촌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맥락에 조용하면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따르는 농촌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들이 대두되어 왔다.

1)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농촌개발정책

해방이후부터 농촌마을의 정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8년 9월에 '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의 공포와 더불어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한미합동 실무반에서 농촌의 지역사회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①한국의 농민들은 자력으로 마을을 개선할 수 있다. ②한국의 농촌 지역사회는 그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에서 다소의 물질적·기술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20명의 지도원과 12개의 시범부락으로 시작된 이사업이 1960년에는 389명의 지도원과 818개의 부락으로, 1962년에는 887명이 지도원과 2,137개의 마을로 확대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였다.(최상호, 1996). 5·16혁명 이후 정부의 직제개편과 농촌지도체계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시범농촌개발사업"으로 이름이 개칭되어 진행되었으나 부처간 협조와 조정의 불일치,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주민들의 자주적 참여동기의 약화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사업이 약화되었다.(권태준·김광웅, 1972). 한편 재건국민운동이 혁명정부에 의해 시작되어 농촌에 청년회관 건립, 농지개간, 농로 개설 등 향토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 1964년 8월말에 근거법의 폐지와 더불어 활동이 종료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주거환경을 좀 더 근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사업은 1966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지붕개량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듬해 3월 23일에 농림부에서 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은 1970년대로 넘어가 시행되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 전

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빈곤에 찌들었던 농촌주거환경을 좀 더 근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2) 1970년대의 농촌개발정책

1970년대의 농촌개발은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마을운동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농촌마을과 관련한 것만을 선별하여 그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1〉에서 보듯이 농촌지붕개량사업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시행되었다.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주택의 본격적인 개량사업과 농촌취락의 정비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새마을운동의 점화사업으로 전개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가의 주거수준 향상과 농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에 있었으나 부수적으로는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기와나 슬레이트 또는 함석 등으로 바꾸어 이음으로써 남은 볏짚을 이용하여 공업원료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하는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볏짚을 연료, 퇴비로 활용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추진되었다.

〈표2-1〉 1970년대 내무부의 농촌개발정책

순서	시기	관련부처	내용
1	1971.12	내무부	농촌근대화 사업의 하나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이어 전국 농촌지붕개량 계획 발표
2	1972.1.4.	내무부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영농의 합리화를 위해 분산 농가의 집다화 사업을 실시기로 결정
3	1972.1.17.	내무부	1972년 내무행정의 역점을 '새마을농촌건설'에 두기로 확정

이 사업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추진되었는데 1972년 정부지원 41억원, 주민자력 87억원, 합계 128억원을 투입하여 41만 3,000동의 지붕개량을 마침으로써 목표 245만 6,000동의 107%인 261만 8,000동을 개량하였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표2-2〉와 같다.

〈표2-2〉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

년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실적	413	476	401	338	466	494	30
누계	413	889	1,290	1,628	2,094	2,588	2,618

자료 : 내무부, 1980

이와 같은 지붕개량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변화시키자 이에 힘입어 내무부에서는 지붕개량사업을 확대하여 1976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농촌주민들의 주택선호경향을 분석하여 197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78년도에는 전국에 걸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근대화된 농촌을 건설한다.
- ②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어울리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③ 복지농촌을 건설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1976년부터 1990년까지의 주택개량사업실적을 보면 1976~90년 간 총 32만 5,987동을 개량하였고 이 가운데 정부지원에 의한 개량이 16만 5,148동(50.7%), 농가의 자력개량이 16만 839동(49.3%)이었다. 여기서 정부지원의 감소 추세는 사실상 농가부채의 누증과 비례관계에 있는바, 이를 주택개량 투입비에서 보면 나타난다.

주택개량 투입비를 보면 사업기간 전체 투입비 7조 674억 원 중 정부 보조금은 약 300억 원으로 3.9%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용자금에 대한 경비가 5,390억 원으로 70.2%, 주민부담금 1,984억 원으로 약 25.8%였다. 용자금 역시 농민이 상환해야 될 경비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간 동안의 주민부담률은 96.1%로서 거의 주택개량사업은 농민의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농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도외시한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과소비 풍조마저 조장하고 일부 농가는 정부보조와 자기자본금으로 부족하여 사채를 얻는 예도 있어 주택신축에 따른 공사채의 부담만을 가중시켰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더불어 추진된 취락구조개선사업은 1976년에 시작되었다. 주로 주택 개량사업에 중심을 두되 자연부탁단위의 도로나 배수로 등 농촌생활 기반 내지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시장, 군수이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리동개발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사업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심의하여 마을당 1억원의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주택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 온 것임에 비해 취락지구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소관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농촌중심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소도읍 계획도 같은기간(1976년)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사업은 소도읍 부락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통, 소득기반시설 등에 투자한 사업이었다.

3) 1980년대의 농촌개발정책

1980년대 농촌마을 공간개발은 주로 농촌주택의 화장실 개선, 입식부엌으로의 개조 등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진흥공사의 정주권개발사업, 내무부의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등으로 대표된다. 이 중에서 농촌불량변소개량사업을 살펴보면 내무부에서는 1981년 농촌에 산재된 재래식 변소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자연부탁 단위 89%, 소도읍 지역은 50%의 불량변소가 있었으며 분뇨를 정화조나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변소는 51%, 지하매몰이나 퇴비사용 등으로 유출되는 변소는 49%나 되어 농촌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농가불량변소 총 123만 동을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1990년 초까지 완전히 개량할 목표 아래 1단계인 1982~85년에 전체 물량의 30%인 37만동을, 2단계인 1986~90년에 나머지 86만 동을 개량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1986년까지 전체의 20%인 24만동을 개량하는 것에 그쳤고 1987년도에는 관광지나 집단개량 희망 마을을 중점대상으로 동당 20만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하여 3만 동을 개량하였다. 1990년도에는 연초 계획 3만 2,000동을 초과하여 3만 4,671동을 개량하였고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보조 96억 8,400만원(39%), 자부담금 153억 3,700만원(61%)으로 자부담이 많았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고, 도·농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이를 근거로 1990~91년에 16개 면 시범사업 등 135개 면 개발과 문화마을 2

개 지구를 착수하였다. 그후 19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서 면단위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 정주권사업의 부문별 사업내용을 보면 <표2-3>과 같다.

한편 정주권개발사업은 ①정책 목표인 중심마을종합방식과 종합개발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은 비교적 올바르게 책정되어 추진되었고, ②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공헌하고 있고, ③농촌지역 공간정비의 제도적 기틀마련에 일조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3>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부문별 사업내용

부문별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마을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 농촌도로정비	마을 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 공동주차장, 버스승강장 등
○ 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원, 향토문화보전시설 등
○ 산업시설	집하장, 공동작업장, 가공·저장시설, 공동판매장 등
○ 환경보전시설	폐기물처리장, 생활하수 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 농어촌주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그러나 정주권개발 사업이 계획과 투자와의 연계성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실제에 있어서는 계획과 투자 간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래의 정책 취지인 중심마을재정비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박시현·박병오,1997)

4) 1990년대의 농촌개발 정책

1990년대의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농촌의 생활환경, 공간환경이 현저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아가 농촌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농업, 농촌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업농으로의 전환, 영농방식 기계화, 영농규모의 적정화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농방식을 현대화하고 취락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전국의 약 6만 7,000여 개의 농어촌 마을은 소규모이며 분산적인 취락구조의 자연발생적인 마을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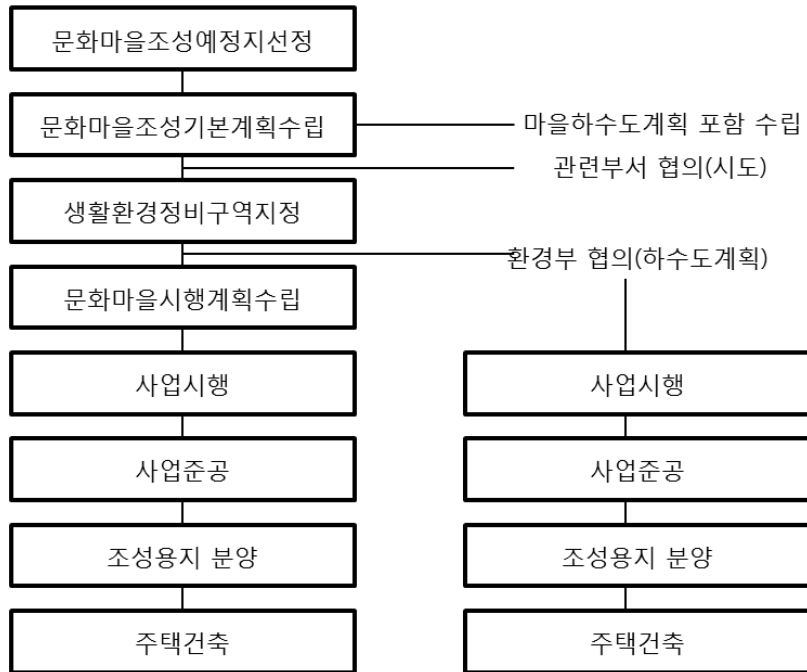
촌주민들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욕구는 정보화의 발달로 도시와의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1990년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면서 농촌의 생활쓰레기, 농촌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문화마을 사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대를 향한 농촌공간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조성목적은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마을을 근간으로 취락구조를 재정비 개발하고, 거점마을에 취락집단 위한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집중생산시설, 유통, 가공시설을 구비하는 등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소득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그림2-4)와 같다.

〈표2-4〉 문화마을 사업내용과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마을조성과 기존마을 재정비 • 기반시설(택지조성, 단지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및 배수, 전기·통신시설 등)과 현대적 주택의 신축 및 개량 • 복지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익시설 • 마을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전시설 • 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건조장, 보관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조성 : 33,057~66,115㎡ (약 1~2만평) 규모 • 주택건설 : 50~100호 • 지구별 사업비 : 50억원 수준 • 보조 : 20억원 (지방잉여금 70%, 지방비 30%) • 용자 : 30억원(농특회계) • 사업기간 : 2~3년 • 마을하수도시설 : 지구당 4억원 수준보조(국고 100%)

〈그림2-1〉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체계



5) 2000년 이후의 농촌개발정책

2000년대의 농촌관련 사업들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이전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첫째 사업의 공간규모가 과거에 비해 면 단위 내지 군 단위로 확대되었다. 개별적인 마을 단위의 사업 보다는 면, 군 단위 사업을 통해 개별 마을 단위까지 발전의 파이를 공유하는 전략이다. 둘째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도시와의 수평적 비교에 따른 격차 줄이기 식의 개발이 아닌 농촌만의 고유한 특성과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었다. 셋째 중앙정부의 시혜적 배분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선별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배타적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넷째 중복사업,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고 정리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 오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촌관련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 것이 그 예다. 다섯째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세계화이 물결에 대해 농촌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공간을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제·문화공간으로 인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개발전략들

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촌개발은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 왔던 사업들을 계승하는 한편 농촌 주민의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들이 대두되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 이러한 다양한 개발프로그램들은 ‘개발’이라기보다 ‘가꾸기’, 또는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불리어졌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마을 가꾸기 등이 그러한 예이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는 ‘신활력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었다. ‘신활력사업’은 엄밀히 말해 농촌마을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부터 시작하여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표2-5〉 신활력사업과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비교

구분	신활력사업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
사업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분야 • 지역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분야 • SOC, 생활·환경기반시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자원 개발 • 농촌관광산업 • 인재육성/삶의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 • 농어촌 상하수도 시설 • 마을회관 건립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참여가능(민·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주도(지자체)
지역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읍·면 단위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이 물리적 시설개선에 치중하였다면 신활력사업은 농촌관광산업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낙후지역사업과 신활력사업을 비교하면 〈표2-5〉와 같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 1차 기간에 추진된 신활력사업은 70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총 8,183억원(시군당 평균 117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때 사업 대상 시·군 선정 기준은 인구·소득·재정력 등 낙후도를 기준으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시·군으로 3년마다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최대 9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추진은 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 정책의 대두배경은 그동안의 다양한 공간정책이 공간의 질과 삶의 질 모두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필요하다. 그런데서 출발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은 달성하였지만 반대급부도 뒤따라서 환경파괴와 생활의 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개발계획보다는 주민주도의 국민운동을 통해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정부의 재정적·기술적·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운동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미래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쾌적한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지역적 단위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만한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만한 지역적 단위는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우선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도단위, 시·군단위, 면단위 마을단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가 더 적합하고 실용성이 있을 것이다. 도 단위에서 특정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천가능성 면에서 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표2-6>는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의 추진과제 중에서 농촌마을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참여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호지부지되어갔다.

<표2-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과제별 사례

도시와 농촌간 상생형 복합공간 조성	
도시지역을 위한 구향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특색 있는 주거단지 만들기 • 기존마을과 어울릴수 있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 마을 숲 조성하기
양질의 생활환경서비스 제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안전사회망 확충 • 소도면, 읍의 문화, 복지기능 증대 • 인근 중·소도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기 • 배후지역으로의 의료지원기능 강화
귀향도시민의 여가 및 느린생활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농어촌 봉사활동 • 느린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 친목회, 동호회 등 지역 소규모 모임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과 형성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꽃길 만들기 등) • 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교류와 만남 활성화
학교와 의료 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의 복합화 및 지역사회와 공유 • 방과 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 •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하기 • 고령자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계층혼합(Social Mix)으로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지역대표 브랜드 창출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야기 발굴을 통한 추억 만들기 •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상징 만들기 • 지역고유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 지역자원을 브랜드로 가치 높이기
장소마케팅 전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색을 갖춘 고유의 마을 축제 만들기 • 지역고유 테마를 활용한 해외유사지역과 교류 • 재리시장만의 특색있는 이벤트 연출

2000년대 정부 추진 농촌관련 마을 사업을 살펴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등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주 5일제로 인한 도시민들의 여가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에 대한 욕구를 유치하고자 하는데서 시작한 농촌관광의 한 형태로 농업·농촌 기본법 “제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 2항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이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항”에 근거하여 농림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의 중심으로 육성시키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촌전통 테마 마을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체험과 학

습을 하게 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소득증대 및 특색 있는 우리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을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13조와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그리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 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며 화합·협동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바람직한 농촌생활 문화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다. “농촌 전통마을 테마마을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첫째 마을고유의 전통문화 및 지식자원 발굴(교육성), 둘째 농촌의 전통문화·농업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교육성), 셋째 농촌다움과 자연경관의 유지 및 보존과 친환경농업(친환경), 넷째 경영·관리능력, 서비스정신함양, 농촌문화시설(주민교육), 다섯째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객관적 평가(객관성), 여섯째 내·외부 네트워크 강화로 관련시범사업 종합투입에 따라 시범효과 극대화(연계성)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사업추진방향은 고유의 전통문화자원과 테마가 있는 마을에 대해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학습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확대를 도모하고 마을의 자연경관과 농업, 문화, 생활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합의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과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구축, 전문가 자문 등 내·외부 지원시스템 구축과 사업단계별 연차적 지원과 연계사업의 유치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마을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쓸거리, 알거리, 체험거리, 살거리 등 7거리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은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환경, 역사환경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더불어 도시인에게 자연과 공생하는 휴가·여가 공간 제공과 어촌과의 교류확대”에 있다. (해양수산부, 2006). 기존의 어촌관광사업이 외부자본을 기초로 하는 상업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적었으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어업현장에서 체험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어촌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하다. 또한 경관감이 전부가 아닌 해양레크레이션 체험·생태·어업활동 등을 통한 창조적 여가활동으로 어촌지역과 교류확대를 가능한 사업이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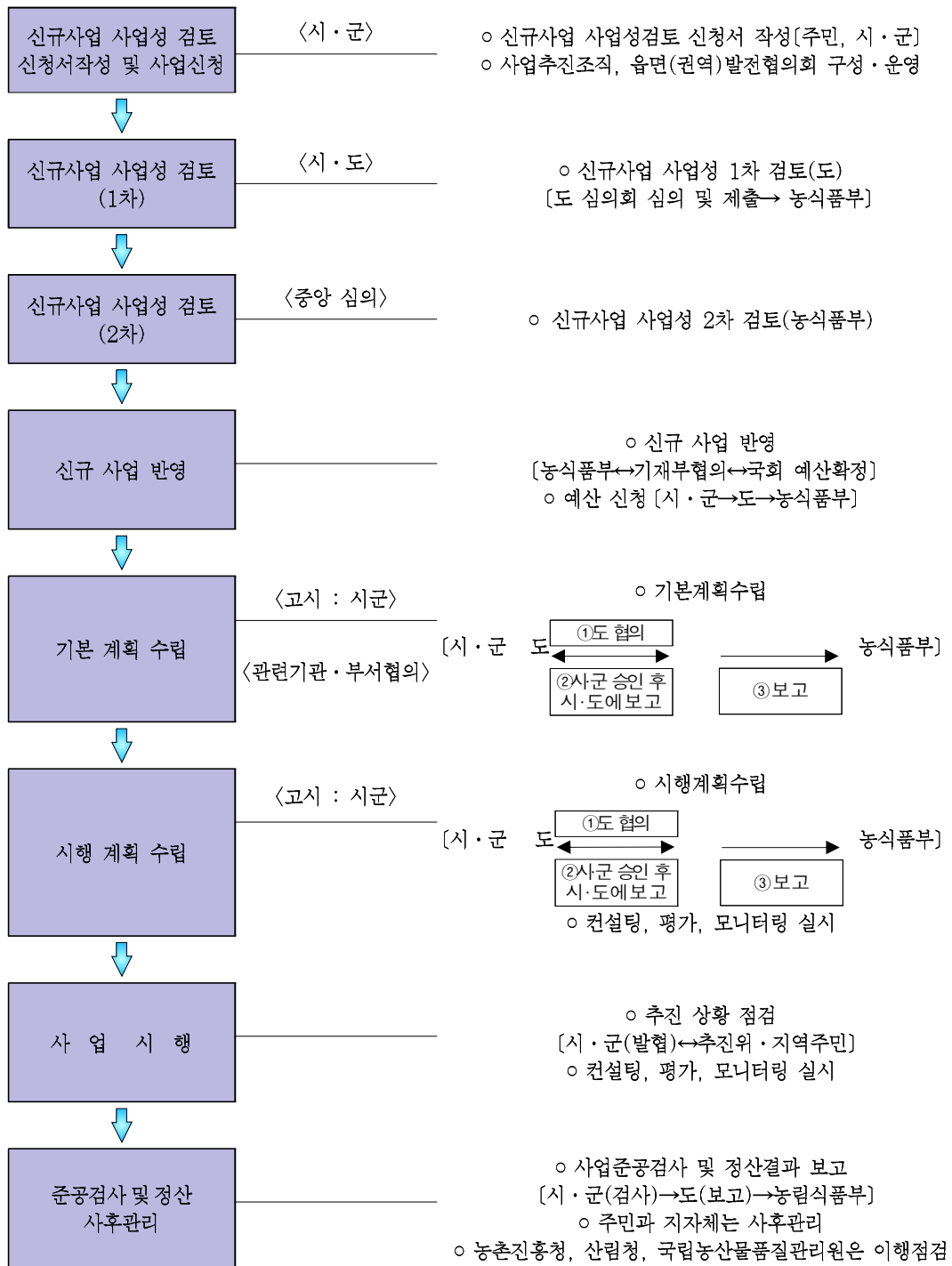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선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된 마을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하고 자연형 하천조성, 생태연못, 녹화, 생태공원 등 오염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주민의 노력을 통해 복원하고 그 복원효과가 높은 마을은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마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 등에 제공하여 생태우수마을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녹색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3. 추진체계 및 현황

(1) 추진체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시·군이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 1차로 시·도에 사업성 검토를 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다. 신청된 사업 대상지 중 사업성 검토 후 다음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 및 예산을 신청,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지들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시·군 승인 이후 도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또한 시·군 승인 이후 도 협의를 거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립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사업 준공 감사 및 정산결과 보고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성된 시설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2019)

〈그림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2) 전국 현황 및 사례

1) 현황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 2,439억 원의 예산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투합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 중 읍·면소재지 대상 중심지 정비 569개소, 마을·권역 대상 1,344개소 정비 등이 이루어졌고 총 예산 규모는 2010년 9,737억 원에서 2017년 8,723억원으로 감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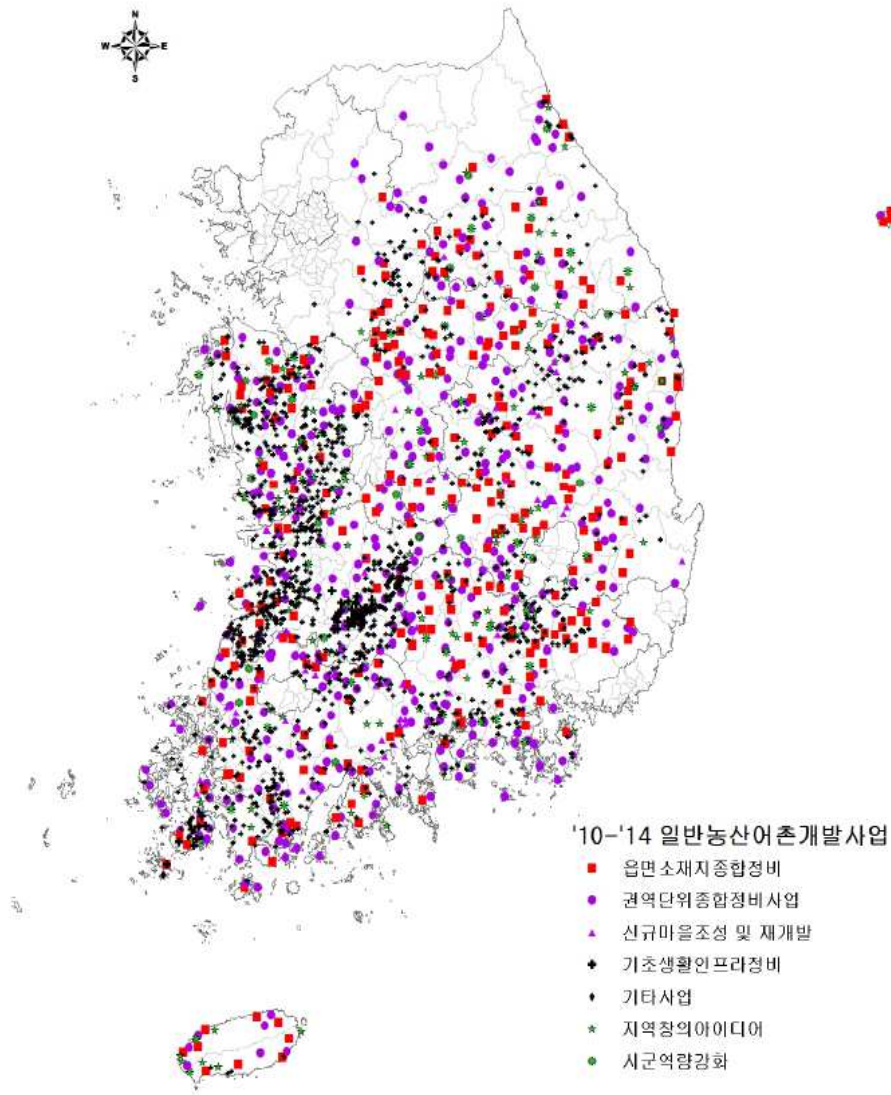
〈표2-7〉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수, 억원

유형별	2010~2014		2015		2016		2017	
	사업개소	사업비	사업개소	사업비	사업개소	사업비	사업개소	사업비
합계	3,174	46,259	723	8,733	720	8,723	810	8,723
농촌중심지활성화	297	9,340	78	3,110	91	3,931	103	5,845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포함)	652	16,833	203	3,120	196	2,849	293	976
시군역량강화	82	29	118	239	122	205	137	309
기초생활인프라	2,057	19,552	308	2,160	293	1,648	257	1,498
기타·협업사업	86	505	16	104	18	90	20	95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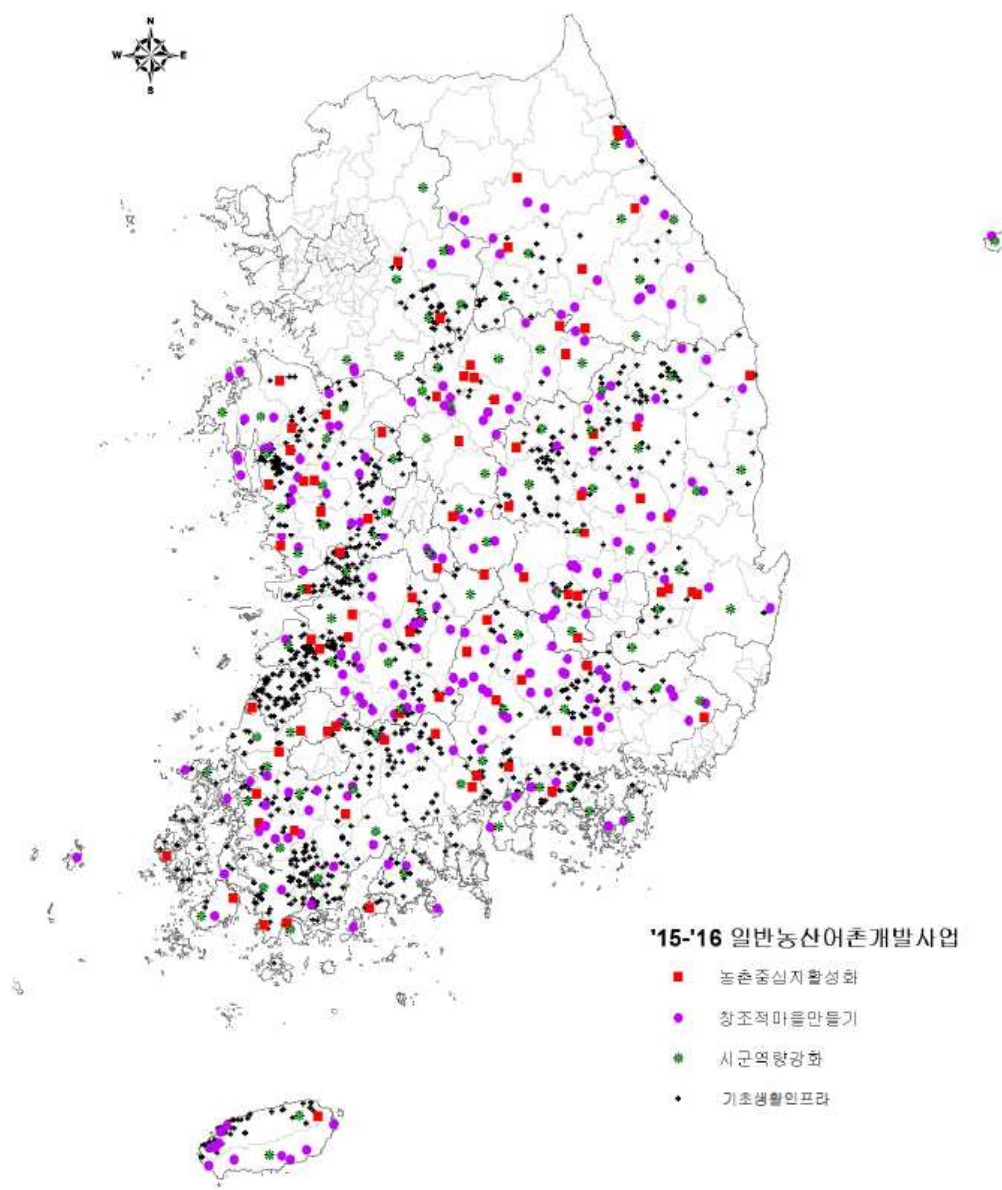
2010년~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2-3〉 2010~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분포 현황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2017)

2015년~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2-4〉 2015~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분포 현황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2017)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우수사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 사업 구분 : 농촌중심지
- 대상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3개 법정리/20개 행정리
- 사업 기간 : 2014 ~ 2017년, 4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오반천 인도교 건설, 주차장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정선5일장 아케이드,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 지역역량강화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프로그램개발, 컨설팅(문화, 복지, 체험, 명품테마상품),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 사업 구분 : 농촌중심지
- 대상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일원
- 사업 기간 : 2014 ~ 2017년, 4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회관 조성, 이야기광장 조성, 한평습터 조성, 녹색통학로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중심로 환경정비, 하천산책로 연결 및 보행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사회적 기업 육성, 스토리텔링,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축제, 체험, 복지, 문화,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 사업 구분 : 농촌중심지
- 대상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일원
- 사업 기간 : 2012 ~ 2014년, 3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센터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체육광장 조성, 진입도로 조

성,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사색공원 조성, 가로경관 정비, 대산천 경관조성, 부체도로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로 확·포장
- 지역역량강화 : 리더 및 주민교육, 홍보(마을소식지, 홍보리플릿), 컨설팅(브랜드, 스토리텔링), 정보화(홈페이지, 정보화기기), 마을 운영지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동부오리 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노른리, 이곡리, 종동리, 고길리, 지동리 등 5개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3 ~ 2016년, 3.5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건강활력관 및 권역광장, 마을쉼터 정비
 - 지역소득증대 : 산채체험학습장, 산채떡가공시설
 - 지역경관개선 : 생태공원조성(주민 및 방문객 휴식공간, 산악레포츠 거점 공간), 권역 안내판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체험프로그램, 리플릿, 도농교류이벤트, 브랜드), 마을 경영 지원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삼기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덕상리, 남차리 일원(6개 행정리)
- 사업 기간 : 2011 ~ 2017년, 6.5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연정노인정, 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 구석산 등산로, CCTV, 마을 무선방송
 - 지역경관개선 : 수살재 유래비, 들보 및 목교 설치, 삼기천 경관수 식재
 - 지역역량강화 : 권역리더 양성,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리플릿, 도농교류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소득사업, 유통, 체험), 정보화, 권역운영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천장리, 용두리, 서정리, 역촌리, 마치리 일원
- 사업 기간 : 2004 ~ 2009년, 6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농교류종합센터, 운동장 조성, 산책로 조성, 야외수영장 조성
 - 지역소득증대 : 장류 가공시설, 구기자체험관, 장승공원, 웰빙체험농원,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 동물 체험관, 권역종합 안내 시스템
 - 지역역량강화 : 리더육성, 주민교육, 친환경재배기술 위탁교육, 지역활성화 및 권역 운영 컨설팅, 정보화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경천애인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경천리, 원가천리 일원
- 사업 기간 : 2008 ~ 2015년, 7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권역활성화센터, 마을회관 재건축
 - 지역소득증대 : 농촌사랑학교(숙박, 체험, 교육), 콩나물 재배사, 싱그랭이원터 조성, 지역산물 가공센터
 - 지역경관개선 : 수변경관산책로 정비, 구룡천 경관길 조성, 돌담 가꾸기 정비, 생태세천 정비, 경관수목 식재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축제지원, 소득사업 컨설팅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용정리, 신기리, 둔덕리, 용두리, 둔기리, 대정리 일원
- 사업 기간 : 2008 ~ 2012년, 4.5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증축, 마을쉼터 조성, 생태주차장, 마을안길 및 권역연

결도로 정비

- 지역소득증대 : 블루베리 체험장 및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종합안내판 및 고가 안내판(이상 농촌관광)
- 지역경관개선 : 팔각전망대
- 지역역량강화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체험, 축제, 블루베리 상품화), 마을 경영지원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왕인촌 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동구림, 서구림, 도랍리 3개 법정리(8개 행정리)
- 사업 기간 : 2012 ~ 2017년, 5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왕인촌 대동누리관, 으라차차 기찬체육공원, 보행로, 공동시설, 리모델링, 쉼터 조성
 - 지역소득증대 : 전통가마솥 누룽지 가공공장
 - 지역경관개선 : 전선지중화, 왕인촌 길라잡이(안내판)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마케팅, 컨설팅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흥현리 가천마을
- 사업 기간 : 2017 ~ 2018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랭이 문화회관 리모델링, 다랭이 거리전시관, 다랭이 음악당, 스마트 CCTV, 스마트 방송시스템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거리전시 및 음향 컨설팅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2017)

(3) 제주지역 현황 및 사례

1) 현황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지역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농촌현장포럼이 32개소로 가장 많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 순으로 추진되었다.

〈표2-8〉 제주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수

구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장포럼	32	-	-	4	6	4	7	6	5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	8	-	-	-	-	2	2	2	2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	7	-	-	1	-	1	2	3	-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	6	-	-	-	-	1	2	3	-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종합)	6	-	-	-	-	2	3	-	1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종합)	18	6	-	5	3	2	1	-	1
농촌중심지	19	4	6	3	2	3	1	-	-
지역창의	2	-	-	-	2	-	-	-	-
합계	98	10	6	13	13	15	18	14	9

자료 : raise.go.kr(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2) 제주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례

○ 서귀포시 수망리(하늘타리 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사업 년도 : 2013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하늘타리 테마쉼터, 하늘타리 문화공간, 마을시설 리모델링
- 지역소득증대 : 하늘타리 건강체험장, 물영아리 생태휴양공간
- 지역경관개선 : 마을테마경관조성, 수망리 마을경관개선, 권역안내시걸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마케팅, 컨설팅

- 사진대지



〈그림2-4〉 서귀포시 수망리

○ 제주시 저지리(웃뜨르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 사업 년도 : 2008년~2012년

- 주요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수동, 중동), 청수다목적회관, 낙천다목적회관, 산양복지회관, 꽃자왈 승마체험학교, 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 장수음식체험장, 종합안내판, 연못정비, 돌담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진희, 2018)

○ 제주시 장전리(녹고미 권역)

- 사업 구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사업 년도 : 2009년

- 주요내용

- 녹고피전통맛골, 공동축사, 방문자센터, 생태체험장 리모델링, 풋감체험관 리모델링, 권역종합안내판, 마을탐방로, 생태연못 정비(2개소), 우수암천 주변정비, 오름탐방로 조성, 녹고피공동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진대지



〈그림2-5〉 제주시 장전리

○ 서귀포시 가시리

- 사업 구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 년도 : 2010년

- 주요내용

- 유채꽃프라자, 농축산물가공시설, 조형물설치, 다목적광장, 행기머체쉼터 정비, 유채꽃단지 조성, 꽃길 조성 및 돌담정비, 목장정비 및 승마코스,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진대지



〈그림2-6〉 서귀포시 가시리

○ 서귀포시 신평리(어멍아방 권역)

- 사업 구분 : 권역단위종합정비

- 사업 년도 : 2014년
- 주요내용
 - 어멍아방 문화갤러리, 어멍아방 건강센터, 어멍아방 가족센터, 동애등애 생태체험장, 해변레포츠 휴식·보관시설, 어멍아방마을 권역 경관형성 계획,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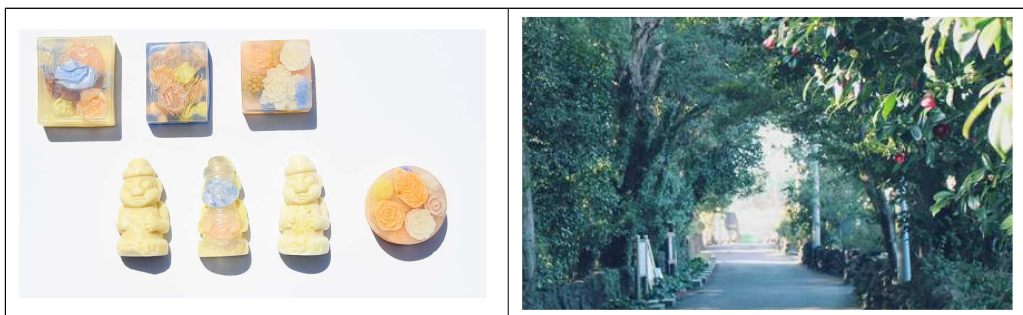
○ 서귀포시 무릉리(무릉도원 권역)

- 사업 구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사업 년도 : 2011년
- 주요내용
 - 작은쉼터조성, 무릉외갓집전시관, 농산물세척장, 제주방언교실조성, 무릉도원올레 홍보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웰촌건강센터, 경관형성계획, 복사꽃 피는 무릉도원 올레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서귀포시 신흥리(동백마을)

- 사업 구분 : 마을단위(체험소득)
- 사업 년도 : 2015년
- 주요내용
 - 가공 및 체험시설 정비, 방문객쉼터, 마을안내시설 구축, 주민교육, 마을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 사진대지



〈그림2-7〉 서귀포시 신흥리

자료 : raise.go.kr(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nokgomoe.com(녹고뫼마을), gasifarm.com(가시리 유채꽃프라자), jejudonbaektown.com(제주동백마을)

3. 선행연구

“2004년 농림부(現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해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한 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역의 비전과 발전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수립하는 등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신규 개편되어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전신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종생(2006)은 담양군 창평권역을 중심으로 자원유무를 통한 각 세부 평가요인별로 나타난 평가량을 중심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고 마을별 풍부한 자원 및 고유자원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민경(2007)은 주민이 지각한 농촌지역개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농촌지역개발 지도자가 과제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이 동시에 높은 설득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 때 주민참여가 가장 높은 것을 규명”하였다.

“방길현(2008)은 전남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도 마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극적 참여의식과 함께 마을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마을 리더를 육성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역량을 결집 시키고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집단의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은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규명”하였다.

“김정희(2009)는 선행 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친환경 건축 및 주거단지 계획요소를 추출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농촌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건축 및 주거단지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농촌관련정책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건축 및 주거단지의 계획요소를 분석하여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이원재(2010)는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중인 구미시 무을면 촌새권역을 사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순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 및 계획수립자에게 합리적인 사업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도종원(2013)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 권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 지원 시설 및 사업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역할이 지역주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안중호(2013)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 분석을 통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업운영 갈등요인, 사업관리 갈등요인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속성 요인, 관리 및 운영 지속성 요인, 커뮤니티 활성화 요인, 사업운영 갈등요인 등을 계획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도출하였다.

안상유(2013)는 중앙정부가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마을만들기는 정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정책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설 조성과 경제중심의 물리적 개발 정책보다는 농촌 마을의 지역정체성이 드러나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삶과 가치를 담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개발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더욱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연구하였다.

박수진(2013)은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배환성(2014)은 공간분석과 계층적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권역 선정 시 필요한 기준 지표를 선정하고, 각 선정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선정된 지표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 이를 바탕으로 권역 성장 모델을 도출”하였다.

“오현철(2016)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 내릴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개발사업 평가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에 농촌개발 사업에서 사

용했던 지표를 도출하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고,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구분된 지표의 타당성 조사, 추가지표 도출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표 연구를 시행”하였다. 김희준(2016)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방법에 의한 농촌 중심지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명숙(2018)은 경상남도의 2개 사업지구(양산 하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합천 밤마리 오광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를 사례표본으로 선정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CVM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천미연(2018)은 하동면 옥종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중심지역과 배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백금철(2018)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에 지역의 정주체계 특성 등의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 될 농촌중심지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김용진(2018)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해석을 IPA 기법을 활용하고 IPA Grid상의 여러 요인이 유형별로 밀집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장계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농산어촌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를 연구하였다.

“백종환(2018)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분석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 정량적·정성적으로 연구된 기존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사업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수립”하였다.

“강신길(2018)은 지속가능한 농촌중심지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아이템 유형분류, 중심성분석, 주민의향,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사업아이템 비교분석, 운영관리 지원체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수현(2019)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경관계획 수립여건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 요인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관 련 연 구
전종생(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원평가시스템구축에 관한 연구 : 담양군 창평권역을 중심으로
신민경(2007)	주민이 지각한 농촌지역개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주민참여간의 관계 :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권역을 대상으로
방길현(2008)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방안: 전남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김정희(2009)	환경친화적 농촌마을개발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이원재(2010)	농촌마을 종합개발의 사업선정과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 구미시 무을면 촌새권역을 사례로
도중원(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시설 유형별 지역주민 만족도 분석
안중호(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 분석
안상유(2013)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으로
박수진(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배환성(2014)	공간분석과 계층적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 선정에 관한 연구
오현철(2016)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연구 : 마을단위 중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김희준(2016)	주민참여방법에 의한 농촌중심지 마을만들기 연구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을 중심으로
이성일(2017)	위분산성 체험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 기본계획 보고서
이명숙(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가치추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천미연(2018)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 하동군 옥종면을 사례로
백금철(2018)	읍면 계층분류에 따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특성 분석
김용진(2018)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 : 장수군 장계면을 중심으로
백중환(201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중요도 분석
강신길(2018)	지속가능한 농촌중심지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
이수현(2019)	농촌경관계획수립과 경관사업의 위상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제2절 AHP분석

1. 개요와 특징

(1) 개요

“AHP는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다수의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선 평가기준들을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정해가는 다 기준 의사결정기법으로 1970년대 중 Pennsylvania 대학의 Thomas Saaty 교수가 미 국무부의 군비 축소 및 무기 통제에 관하여 세계적 경제학자, 게임이론 전문가들과 협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개발한 다요인 의사결정기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technique)의 한가지이다.(송의근, 2007)”

“AHP는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 하여 주요 요인을 세부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세부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 wise comparison)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직관, 경험을 포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기법은 그 단순성, 간편성, 명확성,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여러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왔다(조근태외, 2003)” “이 방법은 의사결정 문제가 평가, 선택, 예측되어 질 때와 의사결정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다.(Satty, 1980).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민감도 분석, 가중치 산정절차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으로 엄밀한 수리적 검증절차를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5)”.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AHP는 현존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그 적용 분야에 있어서도 에너지//입지·호텔/관광/자원·교통 등의 경영문제, 정부·국방 등의 정치문제, 교육·안전/재해/복지·도시/환경/건설·보건/의료등의 사회문제, R&D/ 신제품 개발·생산/제조·품질/컴퓨터/ 정보 등의 기술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에 AHP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권태일, 2008)”.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심리적인 속성과 물리적인 속성 2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물리적인 속성이란, 유형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들로서 측정행위를 하는 주체의 외부

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심리적 속성은 무형적인 것으로 주관적인 감정, 생각, 신념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상반된 물리적인 속성과 심리적인 속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 AHP로써 물리적, 심리적 속성 모두에 있어서 측정도구를 확립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Satty(1987)는 AHP를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표현하고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 혹은 계층을 사용하는 다 기준 의사결정 모델(multi-decision model)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각각의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HarKer(1989)는 AHP를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지원 방법론(Decision Aiding Methodology)”이라고 하였으며, 안승범·김의준·변의석(2003)은 “계층적 분석 방법은 최종 목표, 단계의 구분, 단계별 평가 기준, 대안 등으로 구성되며 기준과 단계들은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의사결정자는 각 평가 기준에 상응하는 상대적 중요성과 대안의 각 평가 기준에 대한 대안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각 대안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를 도출 한다”고 정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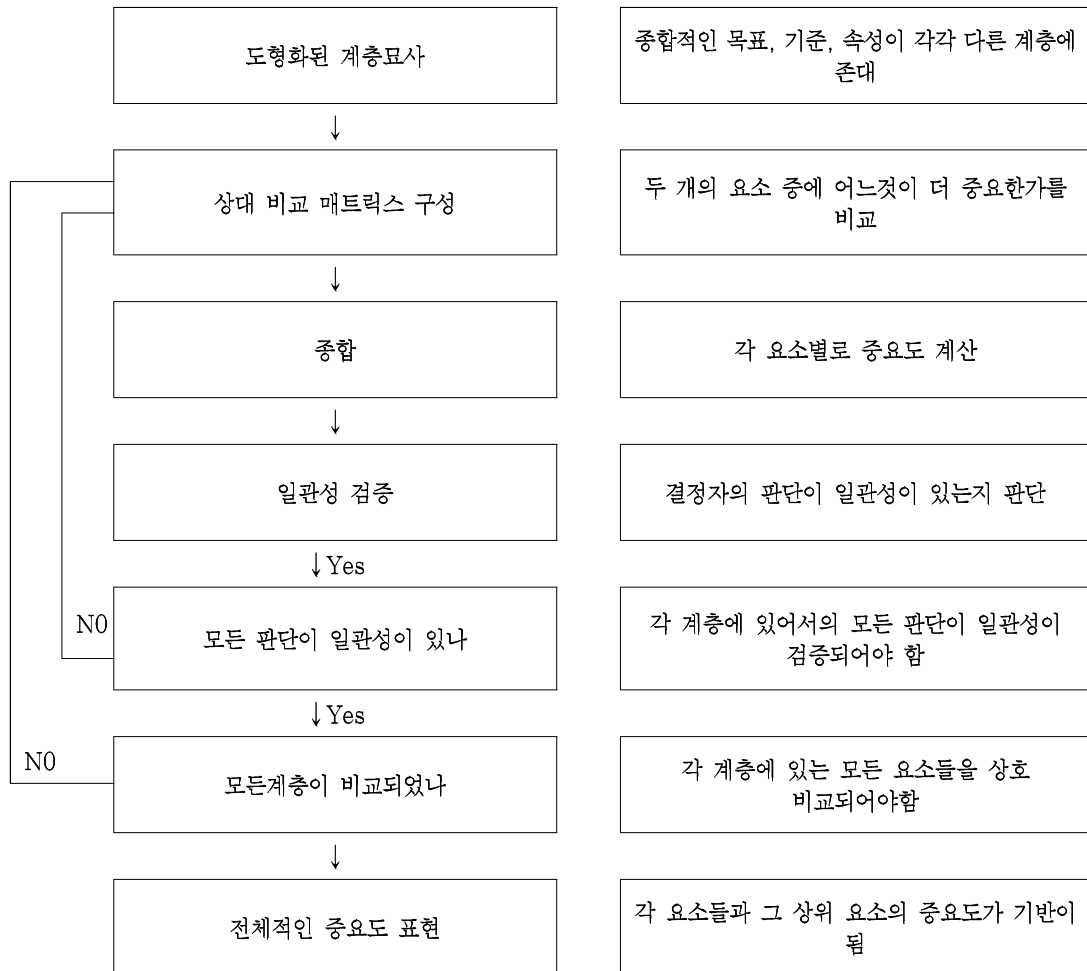
(2) 구성 원리와 특징

“AHP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인간 사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가 있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개발된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이다.(Satty, 1995)

첫째,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의 원리이다. 이 단계는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이끌어내어 계층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자는 중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동일한 집단끼리 분류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문제의 구조화에 포함시켜 보다 완벽한 전체시스템을 구성하여 효과적,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사고할 수 있다.

둘째, 상대적 중요도(weight) 설정의 원리이다. 이 단계는 요소별 중요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찾아낸 요소들 간의 1:1 비교를 통하여 동일 계층 내에 있는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과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Weight and Score 기법의 절대치를 부여해 주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여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이번 단계는 의사결정자가 얼마나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관성 지수”라는 값을 산

출해서 일관성 지수가 10%가 넘어갈 경우 Feed-Back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자료 : 문태화(2009)

〈그림2-8〉 AHP의 일반적 절차

(3) AHP 기본공리

“AHP는 몇 가지 기본공리에 바탕을 둔다(Vargad, 1990). 이는 실제로 AH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들이다.

첫째 상호비교(reciprocal comparison)의 공리이다. 의사결정자는 같은 계층 내에 있는 2개의 요인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만 하고, 거기에서 선호도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요성의 정도는 반드시 역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즉 A가 B보다 X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 배 중요시 되어야 한다.

둘째 동질성(homogeneity)의 공리이다. 동질성이란 비교하는 계층내의 요소 간의 편차가 너무 많아서 안된다는 것으로 만일 편차가 크게 되면 판단에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종속성(dependency)의 공리로서, 한계층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계층의 요소에 대하여 종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 계층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하위 계층 내의 모든 요소들 간의 서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기대성(expectation)의 공리로서 의사 결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계층이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수준의 수가 많아 계층구조가 깊어지면 계산상의 복잡성이 유발되므로 통상 3-7수준으로 계층을 형성한다. 위에서 언급된 4가지 공리는 AHP가 유지되거나 이론적 또는 실제 이용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각각의 공리가 위반 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리 1의 위배는 모호한 질문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판단이나 쌍대비교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되는 질문이 명백하지 않거나 질문이 올바르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쌍대비교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리2가 만족되지 못했다면 비교기준이 동질적이지 못하므로 쌍대비교가 성립될 수 없다. 동질적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들이 비교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별과 바위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규모의 상한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별의 크기에 관한 개념이 있다하더라도 비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리2는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리3은 판단기준의 가중치가 고려되는 대안들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대안의 선택에 유리한 가중치 산출을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두 기준을 쌍대비교 할때는 상위수준의 요소만을 고려해야 한다. 공리 3의 위배를 다루는 방법은 초 행렬 접근(supermatrix approach)

으로 알려진 일반화된 AHP를 사용하는 것이다. 공리4가 만족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합리적 기대를 맞추는데 필요한 모든 대안이나 판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4) AHP의 계층 분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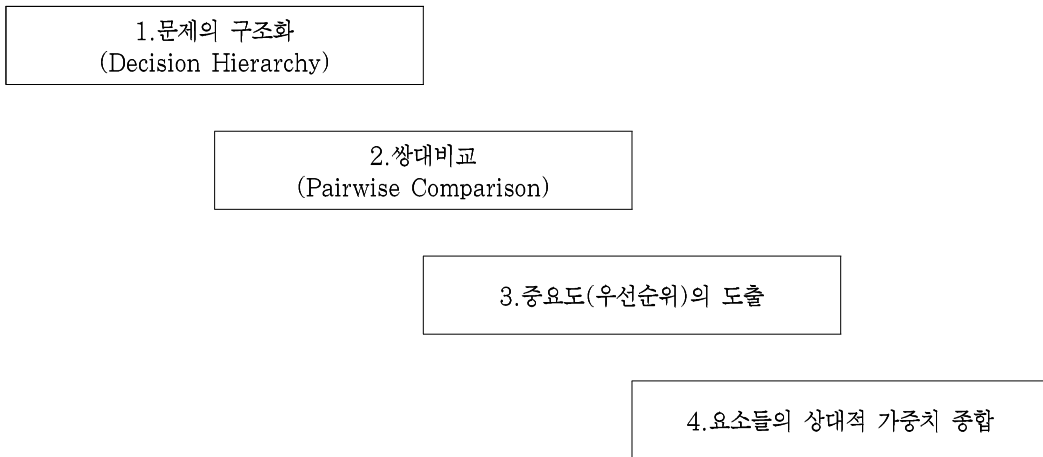
1) 계층구조의 설정

“계층구조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brainstorming을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문제점과 특성을 이해하며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는 목표와 관련된 중요한 항목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찾아낸 요소들의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요소들 상호간의 종속과 독립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군집화한다. 최상위 수준은 문제의 최종 목표를 나타내고 제1계층은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기준을 나타내며, 제2계층은 제1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들로 구성하며, 최하위층에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로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하여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어 계층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쌍대비교를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동일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단순히 우선순위를 찾아내는데 그치는게 아닌 수치화된 요소 간의 중요도를 찾아낸다. 쌍대비교를 하는 과정은 정성적인 요소들을 정량적인 수치로 변환시키는 단계로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험적인 결과를 통하여 알려진 바로는 9단위 척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요소간의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설문조사시에는 우선적으로 어의적으로(매우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등) 판단 결과를 표현한 다음 이를 수치화하여 바꾸는 것이 응답자들의 숫자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나온 값은 수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유치 정리를 이용하여 최종 결과 값인 요소별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2-9〉 의사결정의 구조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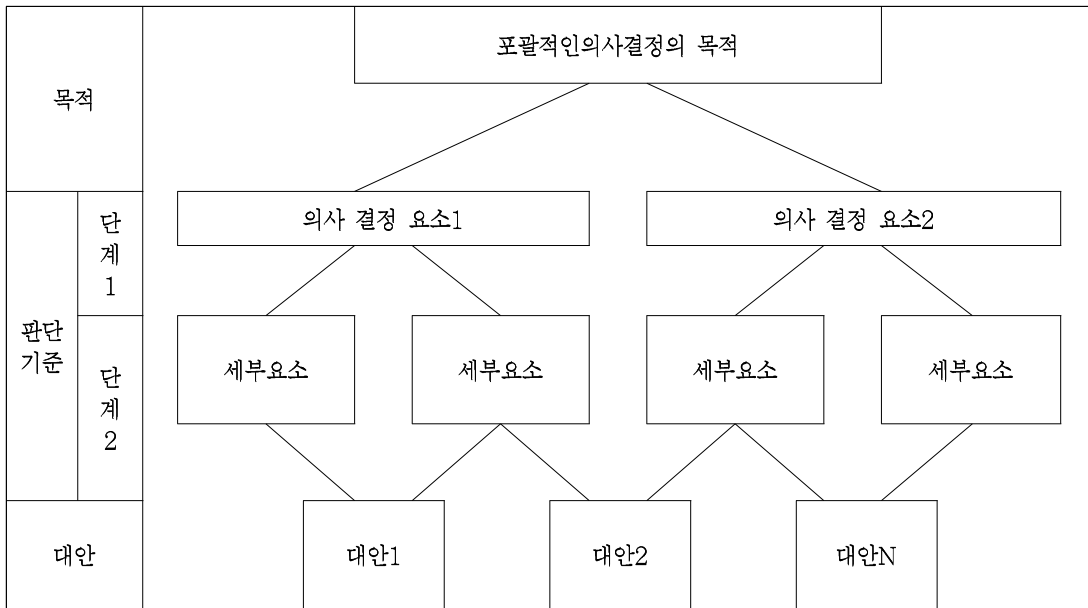
2. 평가 방법과 유용성

(1) 평가 방법

“계층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를 단계로 나누어 계층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계가 구성되면, 최종단계로 가기 위해 각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중요도가 도출된 기준으로 각 대안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동일단계에 있는 평가기준들의 중요도는 직접 하위단계에 전달되며, 이러한 계층적 분석원리에 의하여 최종목적에 합당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이성근, 윤민석, 1994)

최종적으로 9 point likert scale 및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1:1 쌍대비교로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다음 그림(2-5)과 같이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그 절차는 계층별로 각 단계의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계층분석 기법은 같은 단계에 있는 요소들의 중요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어떠한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2003)

〈그림2-10〉 의사결정 사항 계층화

“중요도는 우선성(priority)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쌍대비교의 형태와 같이 두개 요소만을 서로 비교하는 쌍대비교 방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쌍대비교들로 구성되는 행렬의 특성팩터와 특성근을 통하여 각 요소의 중요도를 산정한다.

AHP에 사용되는 척도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요구된다. 1955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얻은 “인간은 7(+2)개의 대상을 혼동 없이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다”하는 결과로부터, 척도의 범위는 1에서9까지의 수로 한다.

한편 Satty(1983)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27개의 수치척도를 사용하여 세부거리와 비교거리감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실험을 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1-9까지의 척도가 실제 값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쌍대비교를 통한 계량적인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하고 신빙성이 있는 척도가 필요하고, 9개의 구분을 가진 척도(seale)를 이용하는 이유는 행렬의 최종 결과가 설문 대상자에 의하여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정확한 값을 응답하여야 한다는 단점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상 9단계의 척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택되어야 하는 대안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척도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AHP에 나타나는 숫자는 보

통의 언어적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 내용은 다음 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와 같다.“

〈표2-10〉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

중요도	정의	설명
1	비슷함 (Equal importance)	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요소들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3	약간 중요함 (Moderat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선호됨
5	중요함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중요함 (Very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극히 중요함 (Extrem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극히 선호됨

중간 값 사용 : 2,4,6,8은 판단과 경험에 의거 비교 값이 위 값들의 중간 값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자료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2003)

(2) 적용의 유용성

“AHP의 유용성을 첫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정량적인 기준과 정성적인 척도를 통하여 비율척도로 측정할 수 있고, 둘째 비정형적이고 다 기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하위 기준으로 세분하여 계층화함으로써 쌍대비교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정성적인 정보를 정량화하여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Satty,1982)”

“AHP는 엄격한 가정 하에서 최적의 해답을 추구하는 과거 방법과는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생각을 쉽게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난해한 의사결정에 AHP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AHP는 다 기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었으므로, 기존 방법이 가지고 있던 의사결정상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하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를 동시에 결정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약점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AHP에서는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오랜 경험을 평가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은 물론, 의사결정문제에서 다루기 힘들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성적 평가기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쌍대비교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도출할 때 나올수 부담을 매우 덜어 준다. 즉 많은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관성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잘못 추출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관성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잘못 추출된 전문가의 지식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쌍대 비교 시 어려운 계량화된 수치를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전문가의 생각을 도출할 수 있다. AHP는 어휘적인 표현을 갖는 지식을 수치화 함으로써 정성적인 접근과 정량적인 접근을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편성이 그룹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도출할수 있다.

AHP모형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기하평균이나 산술평균을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각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AHP의 사용은 의사결정문제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AHP는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며, 간편하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AHP기법은 처음 Thomas Satty(1979)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 외 다른 방면에서 유용성이 입증되면서 Curry&moutinho(1992)가 관광개발계획에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관광, 경제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왔으며(안소현 외, 2015), 국내 관광분야에서는 1990년 중반부터 AHP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관광학에서 AHP는 주로 마케팅, 전략설정, 입지선정, 정책결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등의 주제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다.(이충기·김남현, 2015; 이충기 외, 2015). 김영문·오익근(1996)은 ‘관광학에 있어 AHP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관광지 선택사례를 제시하며 관광학에서의 AHP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관광분야에서의 AHP활용연구는 크게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정책결정과 마케팅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마케팅 분야의 연구들로는 전효재·송성인(2001)의 호텔입지선정에 적용한 연구, 염진철, 박한나(2003)의 패밀리레스토랑 입지선정에 적용한 연구, 김미경·이애주(2015)의 외식창업 성공요인에 관한연구, 박재현(2004)의 관광지 입지선정에 관한연구, Timor&Sipahi(2005)의 패스트 푸드점 선정요인에 관한연구, Chen(2006)의 컨벤션 개최지 선택속성연구, 김승렬·김창식·곽기영(2010)의 몽골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국외관광객의 여행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둘째, 정책결정에 적용한 연구들로는 김향자(1998)의 관광정책 우선순위설정연구, 김대관·이상민, 김학준(2010)의 관광레저도시의 핵심사업 선정연구, 김사영(2010)의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분석연구, 문경중·이성호(2015)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정책집행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셋째,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들로는 변우희(1996)의 경주권 관광개발 제약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김남현 외(2005)의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서 관광프로젝트 평가 기준에 관한연구, 권기창(2016)의 안동시 3개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평가지표, 관광정책, 마케팅에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AHP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주제인 투자 중요도에 대한 연구는 이상민(2008)이 AHP를 활용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핵심사

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김수엽(2012)의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요인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전영애(2010)의 AHP기법을 활용한 춘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 마케팅 전략, 조혜경(2009)의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임경환(2017)의 관광지 유형별 재생사업 지표활용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AHP가 활용되고 있다.

〈표2-11〉 AHP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학 자	관 련 연 구
전효재 외(2001)	호텔입지선정에 적용한 연구
염진철 외(2003)	AHP를 활용한 패밀리레스토랑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박재현(2004)	AHP를 활용한 관광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정승준(2005)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한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 2005 경기방문의 해 사업을 중심으로
전종생(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원평가시스템구축에 관한 연구 : 담양군 창평권역을 중심으로
권태일(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적용
이원재(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사업선정과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 구미시 무을면 촌새권역을 사례로
오정환(2010)	계층화분석기법(AHP)을 이용한 어촌관광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기장군 공수마을을 중심으로
김승렬(2010)	몽골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국외관광객의 여행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이승환(2010)	AHP법을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배환성(2014)	공간분석과 계층적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서인석(2014)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평가에 관한 연구
김영택(2014)	농촌마을 유형별 발전단계 설정을 위한 구분지표체계 개발
김미경 외(2015)	외식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최경지(2015)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지역관광 발전방안
문경중(20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정책 집행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최유나(2016)	농촌 공공 공간 및 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임경환(2017)	관광지 유형별 재생산업 지표활용 연구
이새미(2019)	AHP를 활용한 남북관광 활성화 요인 도출과 우선순위 분석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자료수집

1. 표본설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사업 이해관계자인 시행 주체 지자체 및 공사, 사업 계획 주체인 전문가, 사업 운영·관리 주체인 지역주민,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 및 공사는 예비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기본계획단계부터 공사, 감독을 실시하는 시행주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주체인 전문가는 예비계획 단계에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선정된 예비 계획을 토대로 법적 검토, 사업비 검토, 입지 타당성, 사업 타당성, 연계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운영·관리 주체인 지역주민은 시설물 설치 이후 해당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접목해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3분류의 주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각각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응답을 통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운영·관리 단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설문 대상 지역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총 6지역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별로 지자체 및 공사 6부, 전문가 6부, 지역주민 6부 등 총 18부씩 총 108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진행하였다.

〈표3-1〉 AHP분석 대상 지역과 설문 대상자

구 분	역 할	지 역
지자체 및 공사	사업 시행 주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6개 지역 각 6부씩 배포
전문가	사업 계획 주체	
지역주민	사업 운영·관리	

2. 자료수집

AHP 분석을 위해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총 108부의 설문을 발송하였다. 1차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전화 및 메일 발송을 실시하였고 3차로 일관성이 없는 설문지를 재배포하여 설문을 실시 하였다.

전체 108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95부이며 이중 지자체 및 공사 30부(회수율 83.3%), 전문가 32부(회수율 88.8%), 지역주민 33부(회수율 91.6%)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AHP 전용 통계 프로그램 Expert choice 2000을 통하여 각 문항별 일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관성 검증의 기준은 Satty의 연구를 토대로 0.1 이하만을 채택하였으며, 0.1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배포를 실시하였다. 재배포 설문지는 지자체 및 공사 9부, 지역주민 11부, 전문가 9부로 총 29부이다.

재배포 설문지 포함 지자체 및 공사 설문지의 경우 9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조사되어 21부만 채택하였고, 전문가 설문지의 경우 9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조사되어 23부만이 채택되었고 지역주민 설문지의 경우 11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조사되어 22부만이 채택되었다. 전체 설문대상자 대비 채택된 설문의 비율은 지자체 및 공사 70.0%, 전문가 71.9%, 지역주민 66.7%로 나타났다.

〈표3-2〉 AHP분석 설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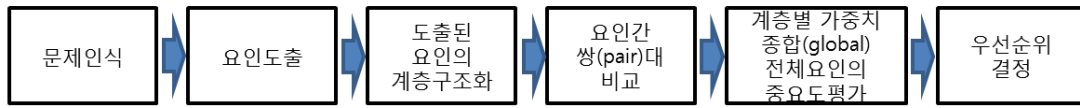
구분	설문대상자수	응답자수	재배포	채택자수	설문비율
지자체 및 공사	36	30	9	21	70.0%
전문가	36	32	9	23	71.9%
지역주민	36	33	11	22	66.7%
계	108	95	29	66	69.5%

제2절 분석방법

1. 분석방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여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나 지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사업선정, 우선순위, 평가지표에 대한 주제로 연구동향이 바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중요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명확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과 예시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우선 진행하고, 그의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선행연구,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시들을 종합하여 중요도 설정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각 요인별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은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AHP기법은 두 요인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어느 요인에 어느 만큼의 중요도가 발생하느냐를 확인하는 기법으로 요인 간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전신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배환성(2014), 이승한(2010), 이원재(2010), 백종환(2018)은 평가지표설정, 사업 항목별 중요도 설정, 권역 선정 등에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요인들을 1단계(목표), 2단계(중간), 3단계(하위)로 구조화한 후 각 계층의 요인을 짝지어 1:1로 쌍대비교를 진행하여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된 요소들의 계층별 가중치를 종합(global)하여 전체요소의 중요도를 계산하였다.(임성희, 2017)



〈그림3-1〉 연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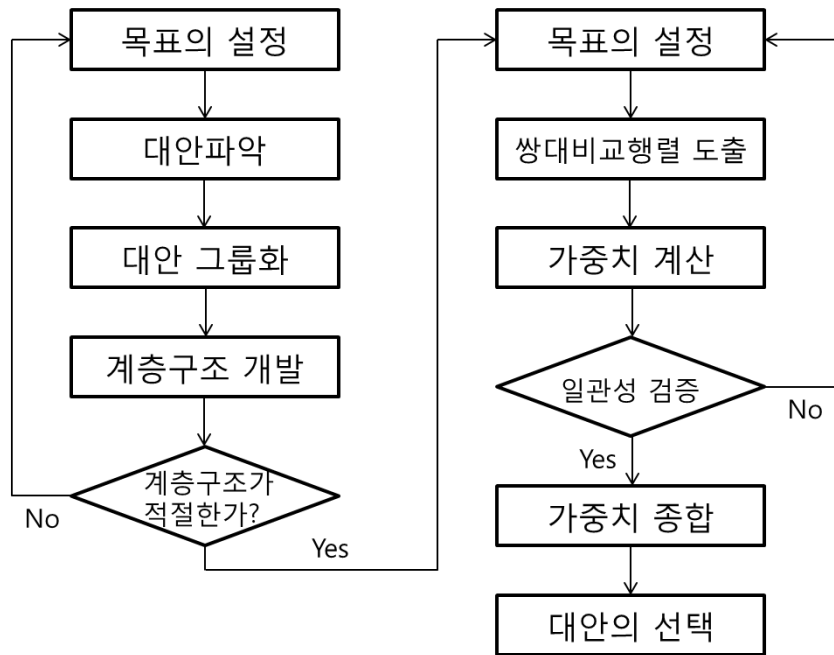
2. 분석절차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

AHP(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분석은 T. Satty(1980)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방법론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한 전문가의 직관 및 경험, 지식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하고 분석방법이다(조근태 외, 2003). 이 방법은 의사결정목적이나 기준이 여러 개이고, 개별 기준에 대한 평가가치에 차이가 있을 때, 차이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 AHP 기법의 진행절차

AHP분석은 세단계의 기본적인 단계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의사 결정 구조의 해체를 통한 계층의 구조화(decomposition)이고, 두 번째가 계층화된 요인들의 쌍대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자의 평가작업(judgment)이며, 세 번째가 평가를 통한 결과값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합과정(synthesis)이다(Harker&Vargas, 1987:재인용).



〈그림3-2〉 AHP 분석 진행절차

(3) AHP기법의 일관성 검증

AHP분석의 평가를 통한 결과값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합과정은 비교요인들의 종합 가중치를 나타내는 단계이다. 최상위 단계에 있는 의사결정문제의 가장 일반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최하위 단계에 있는 대안들이 중요성 또는 기여도를 가지는 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W_i = \sum(w_j)(u_j^i)$$

W_i : I번째 대안의 종합 가중치

w_j : 평가기준 j의 상대적 가중치

u_j^i : 평가기준 j에 대한 I번째 대안의 가중치

이때 일관성을 검증하여 평가기준의 평가 일관성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실시한다. 일관성이 완벽할 경우 일관성 지수(CI)는 0이 되고, 일관성이 떨어질수록 일관성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Satty는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에 평가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0.1을 초과할 경우는 일관성이 떨어져 재평가를 시행하거나 설문지를 수정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CR = \frac{CI}{RI}$$

CR : 일관성 비율

CI : 일관성 지수

RI : 무작위 지수

(4) 분석절차

중요도 도출을 위하여 AHP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 분류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한다. 2차 설문에서는 선행연구와 1차 설문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세부사업을 설문항목에 추가하여 도출한다. 최종 중요도는 Global weight과 Local weigh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대한 값 뿐만 아니라 순위를 산출하기도 한다.

제4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1절 평가체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화, 복지, 주거·수질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도로·교통, 안전·재해대비, 상하수도,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소득증대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분야로는 소득기반, 체험관광 사업이 있다.

지역경관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로 경관·생태 사업이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표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어린이 놀이터, 야외공연장, 쉼터, 운동·레포츠 시설 등), 향토자원정비, 마을방송 등
	복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수질·주거 환경 개선	신규마을기반조성, 빈집정비,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혐오시설 철거 등
	전통시장 정비	전통시장(5일장) 정비(비가림시설, 간판정비 등) 등
	도로·교통	마을안길,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교통시스템,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안전펜스, 간단응급처치장비,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장비 및 시설,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등

〈표계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가공장, 선별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기반가공시설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야영장, 폐교활용, 생태체험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생태·경관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둠벙정비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시설운영, 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계획수립, 세부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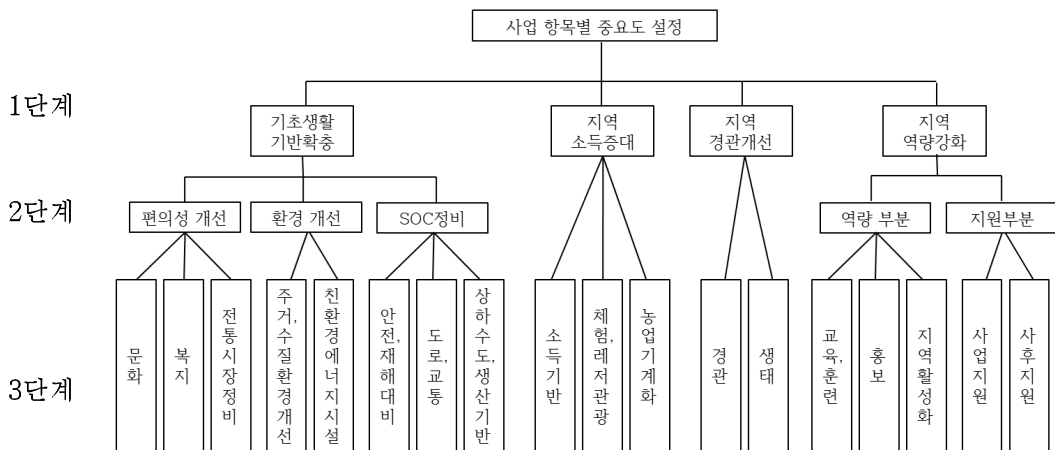
평가체계는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서상의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예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들 대상의 1차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에 대해 4개 계층, 7개 요인, 18개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Hierarchy 모형은 [그림4-1]와 같다. Hierarchy 모형의 1단계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의 4개 계층으로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시와 같고 2단계 요인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에는 편의성개선, 환경개선, SOC정비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지역역량강화에는 역량부분, 지원부분으로 구분하며, 지역소득증대와 지역경관개선은 별도의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3단계 세부항목으로 단계를 나누었다. 3단계 세부항목에는 기존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4개의 항목이 신규로 추가 되었다. 추가된 항목은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친환경에너지 항목과, 지역소득증대에 레저관광, 농업 기계화 항목, 지역역량강화에 사후지원 항목이 추가되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의 친환경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등의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소득증대의 레저관광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레저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을 방

문하는 방문객에게 레저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기계화 항목은 농산어촌의 기계를 현대화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켜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후 지원 부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위의 4개 항목을 추가요인으로 적용시켰다.

Goal



〈그림4-1〉 중요도 Hierarchy 모형

중요도 설정의 최하위 계층인 3단계 평가항목에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의 편의성개선은 문화, 복지, 전통시장정비로 구분하며, 환경개선은 주거·수질환경개선, 친환경에너지시설로 구분하고 SOC정비에서는 안전·재해대비, 도로·교통, 상하수도·생산기반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소득증대는 소득기반, 체험·레저관광, 농업기계화로 구분하였다. 지역경관개선은 경관, 생태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역량강화의 역량부분은 교육·훈련, 홍보, 지역활성화로 구분하였으며 지원부분은 사업지원, 사후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종합하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서 3개 요인 8개 평가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지역소득증대에서는 2단계분류 없이 3개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고, 지역경관개선 역시 2개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역량강화에서는 2개요인 5개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표4-2>와 같이 구분된다.

〈표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중요도 평가항목 계층 구분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측정지표
기초생활 기반확충	편의성 개선	문화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복지	-지역주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전통시장정비	-지역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환경개선	주거, 수질환경개선	-지역의 주거, 수질환경을 개선
		친환경에너지	-지역내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설치, 활용
	SOC정비	안전,재해대비	-재해 및 안전에 대한 시설 설치
		도로, 교통	-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교통 환경 개선
		상하수도, 생산기반	-지역 상하수도 및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
	지역 소득증대	소득기반	
체험·레저관광		-체험·레저관광을 통한 소득 창출	
농업기계화		-농업의 생산, 경영환경을 개선	
지역 경관개선	경관		-지역 불량 경관개선 및 경관 조성
	생태		-지역 생태 복원 및 정비
지역 역량강화	역량부분	교육,훈련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홍보	-축제, 정보화를 통한 홍보
		지역활성화	-지역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부분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등의 기타 제반 비용
		사후지원	-사업 이후 운영, 관리에 대한 지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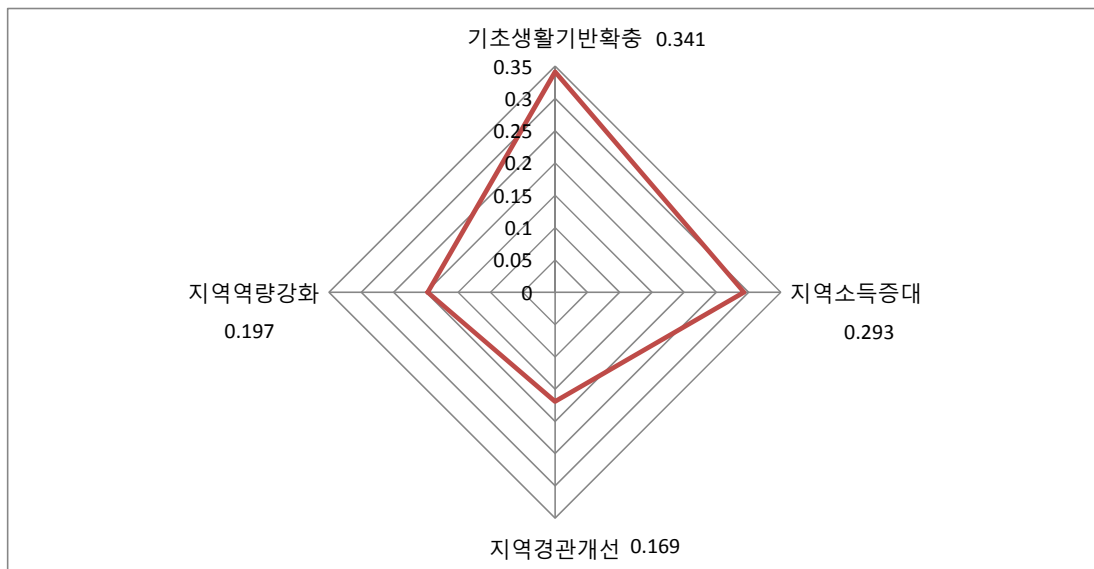
제2절 AHP 중요도 분석 결과

1. 전체설문의 분석(Global weight의 분석)

Global weight이란 각 기준에 의해 도출된 가중치에 의해서 곱셈식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Ching-Fu Chen, 2006). 즉, 하나의 기준에 대하여 각 하위 계층들의 가중치가 분산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최하위 단계의 가중치 분석의 총합이 1이 되는 형태를 이룬다.

Global weight 방식은 AHP 목적에 대한 최소단위 요인들의 통합적인 가중치 정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임화순·남윤섭, 2011).

통합적인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출하는 Global weight의 분석 결과 기능별사업에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이 0.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소득증대(0.293), 지역역량강화(0.197), 지역경관개선(0.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및 공사,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주거, 도로 환경 등의 편의성, 환경 개선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지역의 소득증대 부분이 중요하며, 지역역량강화, 지역경관개선 순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4-2〉 전체 그룹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표4-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요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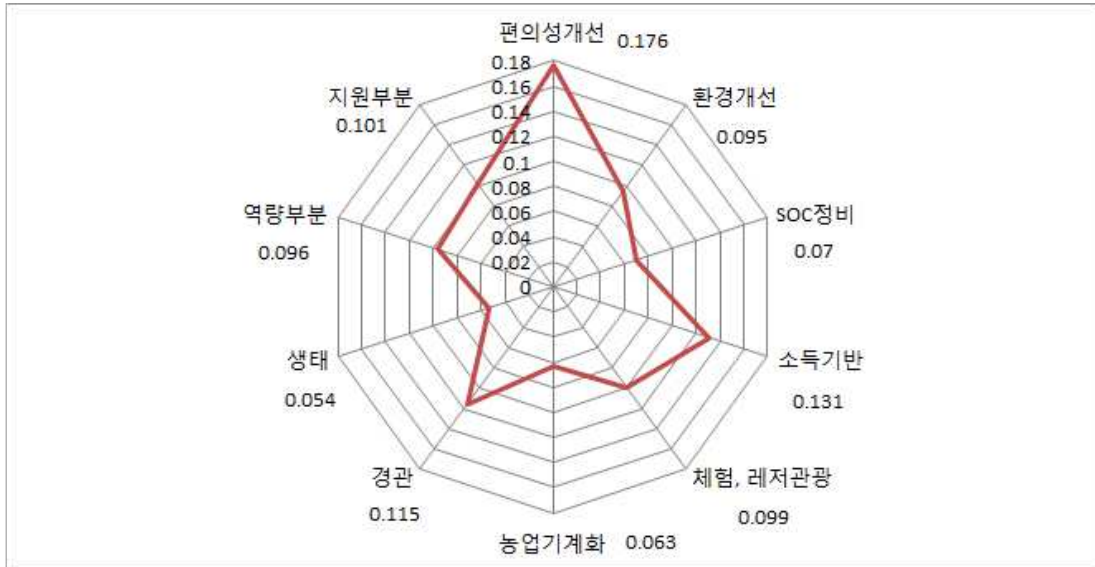
기능별 사업	중요도	사업 분야	중요도	세부사업	중요도		
기초생활 기반확충	0.341	편의성 개선	0.176	문화	0.073		
				복지	0.075		
				전통시장정비	0.028		
		환경개선	0.095	SOC정비	0.070	주거, 수질환경개선	0.046
						친환경에너지	0.049
						안전, 재해대비	0.016
		지역 소득증대	0.293	소득기반	0.131	도로, 교통	0.032
상하수도, 생산기반	0.022						
소득기반	0.131						
지역 경관개선	0.169	체험·레저관광	0.099	체험·레저관광	0.099		
		농업기계화	0.063	농업기계화	0.063		
		경관	0.115	경관	0.115		
지역 역량강화	0.197	역량부분	0.096	생태	0.054		
				교육, 훈련	0.040		
					홍보	0.017	
		지원부분	0.101	지역활성화	0.039		
				사업지원	0.040		
사후지원	0.061						

세부사업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의 편의성개선이 가장 높은 0.176의 중요도를 보였고, 소득기반(0.131), 경관(0.115), 지원부분(0.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 개선사업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최근 농산어촌지역에서도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농산어촌지역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전원생활에 부가적으로 문화,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기반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한부분이 소득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관부분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훼손되어지는 농어촌경관을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부분은 사업 이전과 사업이후 운영, 관리부분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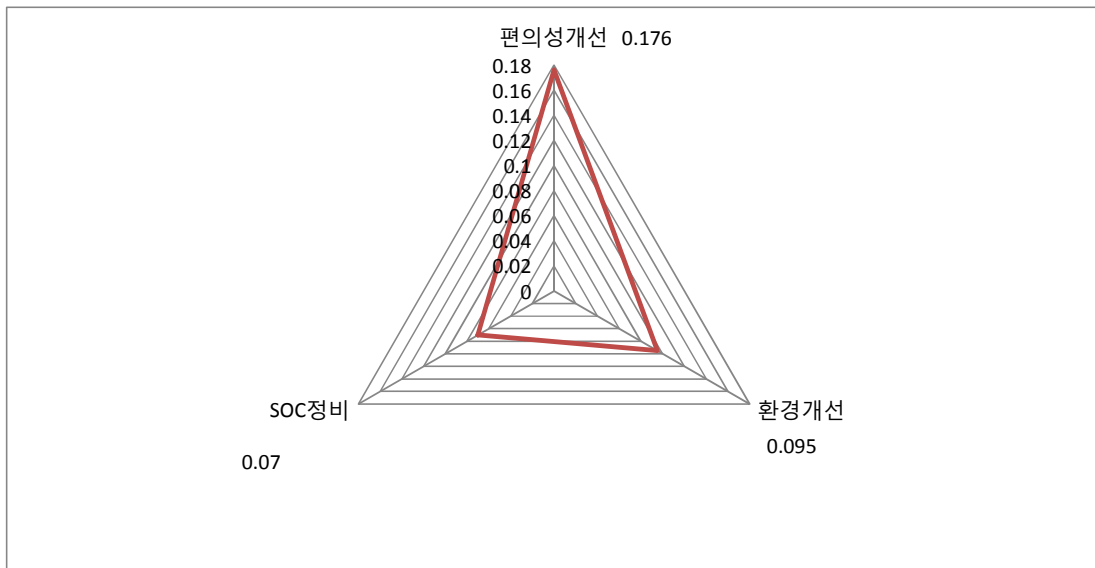
반대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세부항목은 생태(0.054), 농업기계화(0.063), SOC정비(0.070)의 순서였다. 생태부분에서는 농산어촌지역이 생태환경은 마을단위의 접근보다는 큰

범위에서의 접근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SOC정비와 농업기계화 부분은 과거에는 농산어촌지역이 열악한 환경이라면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과 농업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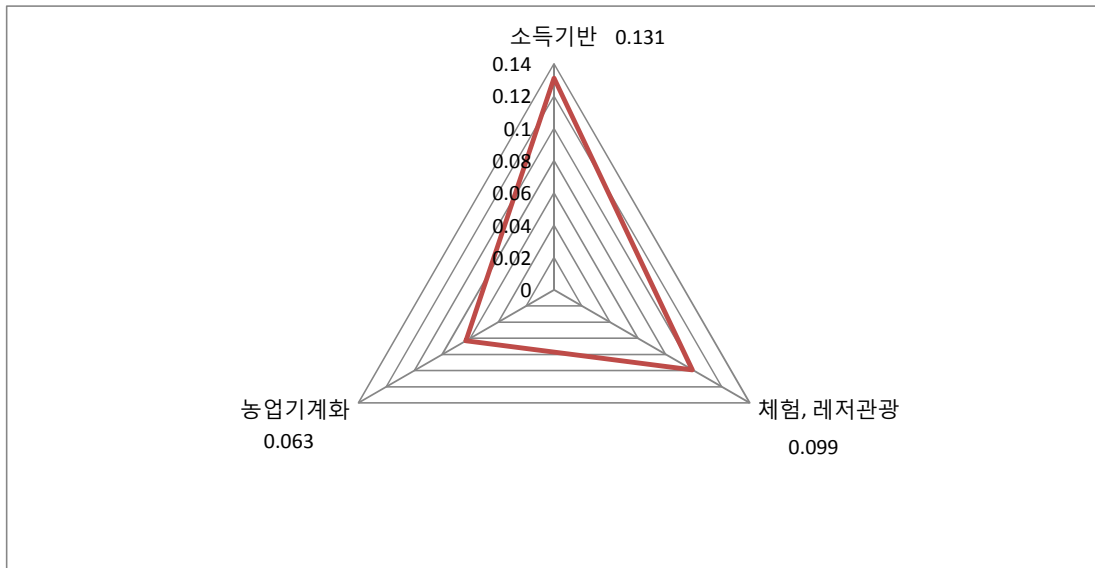
〈그림4-3〉 전체 그룹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서의 사업분야별 중요도는 편의성개선 (0.176), 환경개선(0.095), SOC정비(0.0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사업분야에 비해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중요도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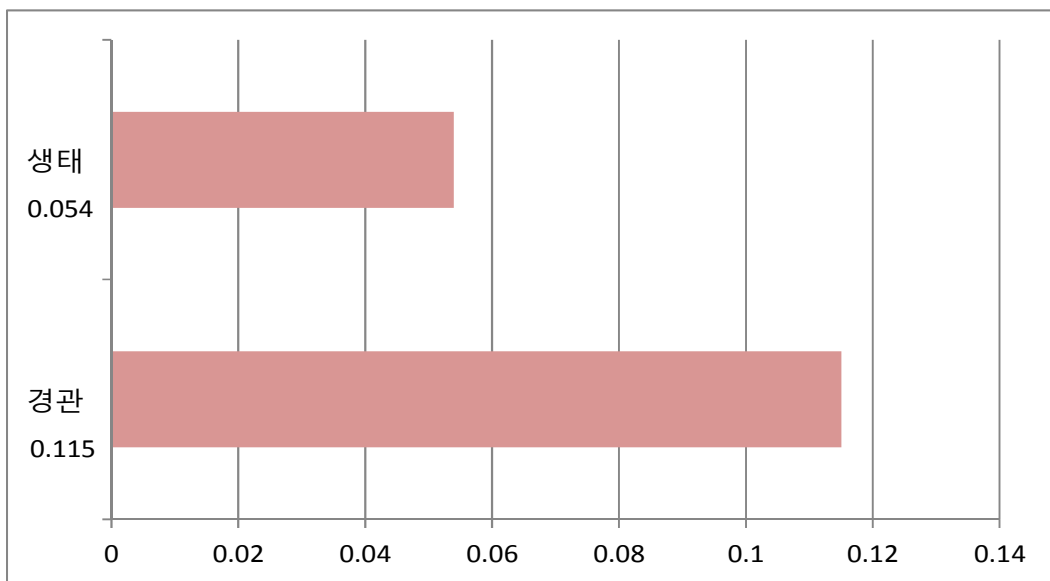
〈그림4-4〉 전체 그룹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역소득증대 부분은 0.131로 소득기반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체험·레저관광 (0.099), 농업기계화(0.0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소득증대 부분에서는 지역의 특 산물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시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중요도 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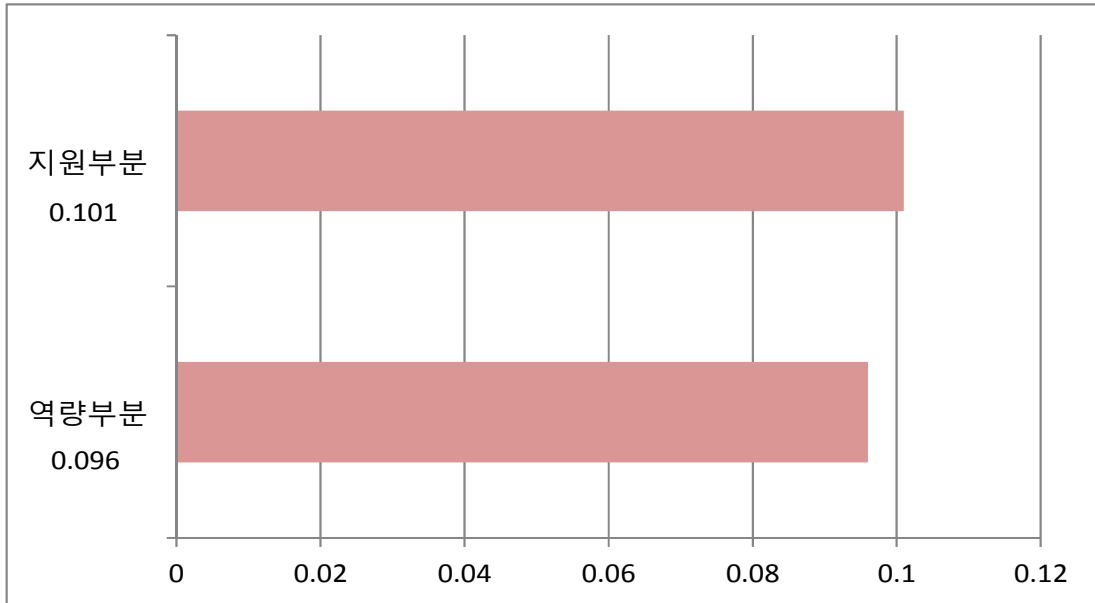
〈그림4-5〉 전체 그룹 지역소득증대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역경관개선 부분은 경관(0.115), 생태(0.05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농산 어촌의 생태보존 보다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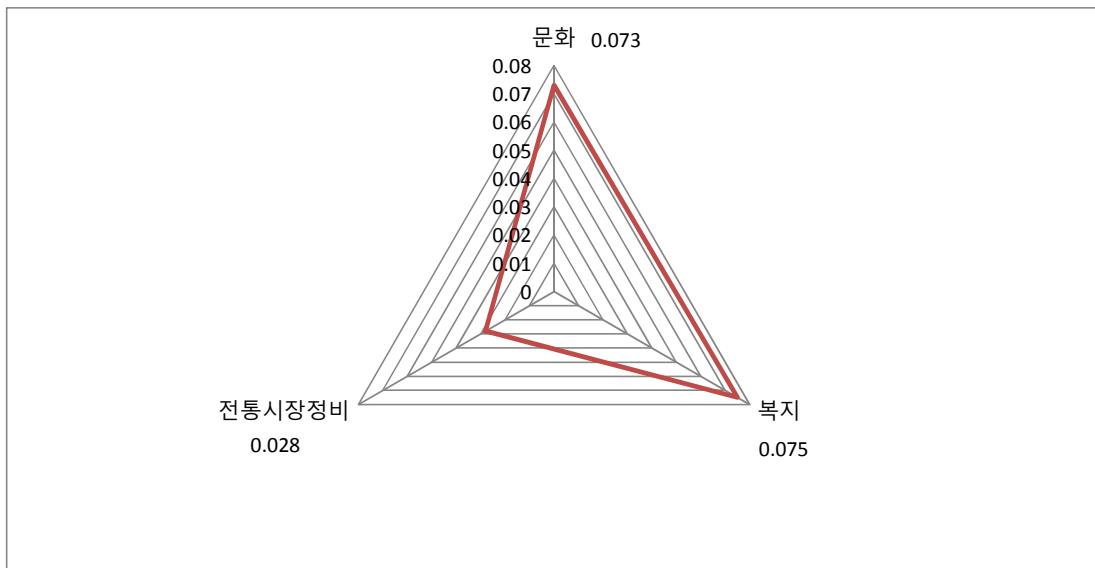
〈그림4-6〉 전체 그룹 지역경관개선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지원부분(0.101), 역량부분(0.096)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두 항목 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원부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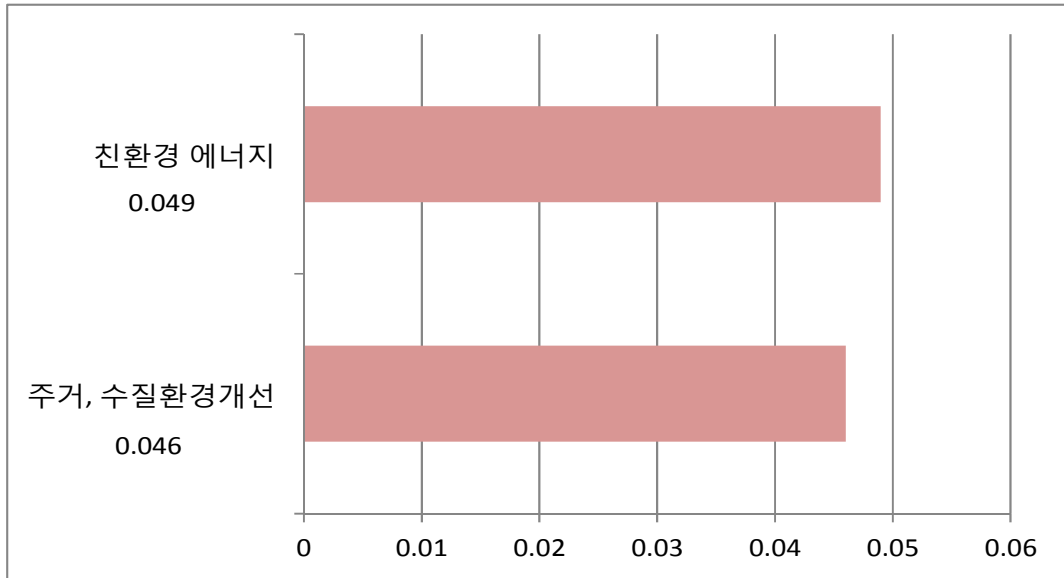
〈그림4-7〉 전체 그룹 지역역량강화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편의성 개선 부분에서는 복지(0.075), 문화(0.073), 전통시장정비(0.028)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농산어촌지역에서도 최근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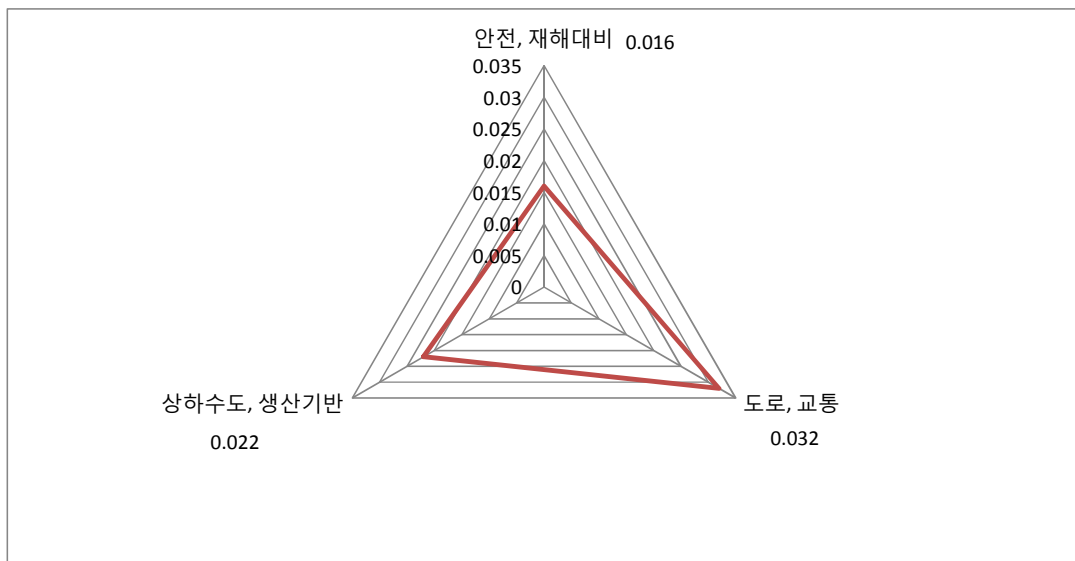
〈그림4-7〉 전체그룹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친환경에너지(0.049), 주거·수질환경개선(0.046)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시설물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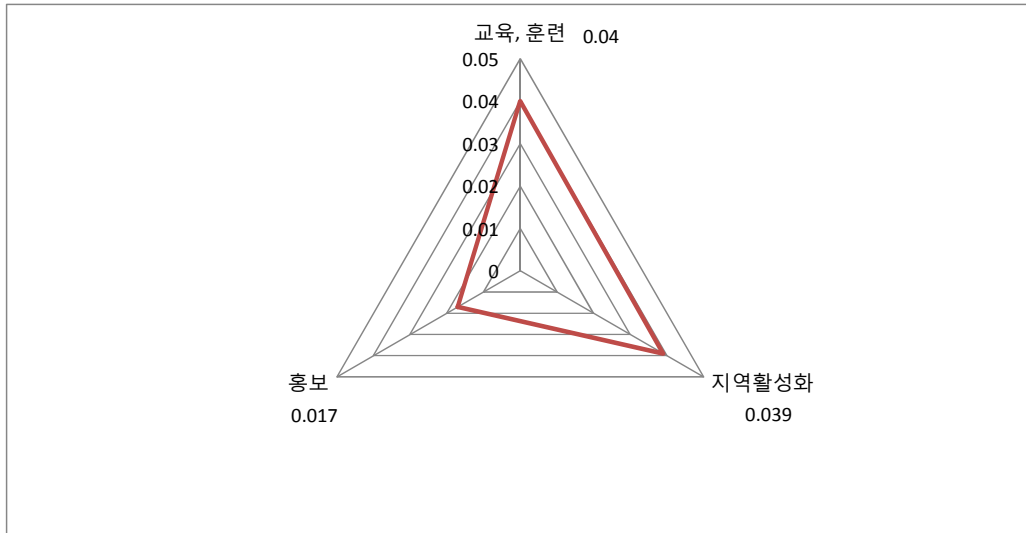
〈그림4-8〉 전체그룹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SOC정비 부분에서는 도로·교통(0.032), 상하수도·생산기반(0.022), 안전·재해대비(0.0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지역의 도로, 교통망 개선을 통하여 접근성과 이동의 원활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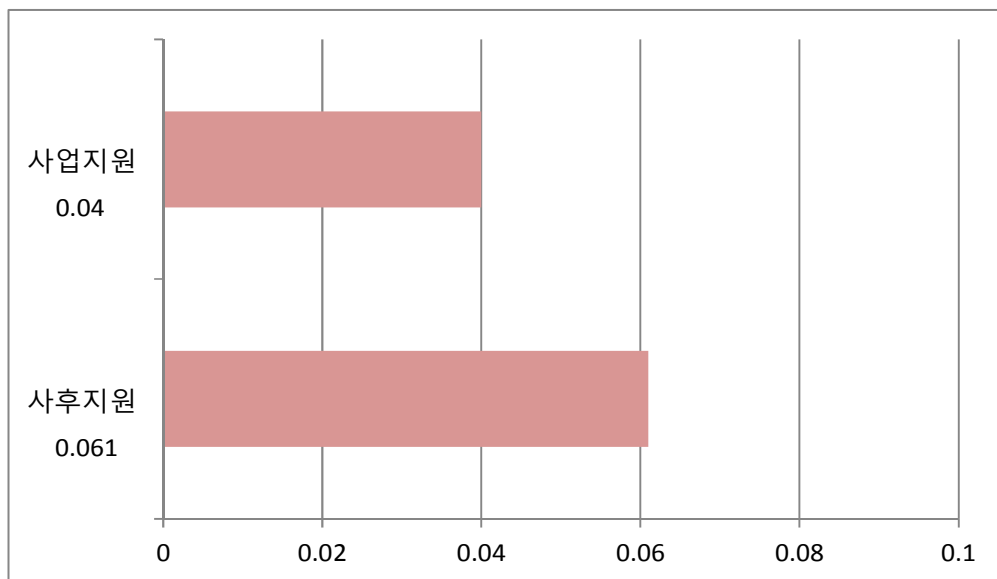
〈그림4-9〉 전체그룹 세부사업(SOC 정비)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역량부분에서는 교육·훈련(0.040), 지역활성화(0.039), 홍보(0.017)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로 시설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림4-10〉 전체그룹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지원부분에서는 사후지원(0.061), 사업지원(0.040)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지원은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기본계획수립, 마을경영지원, 공사설계·감리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사후 지원부분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러한 부분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림4-11〉 전체그룹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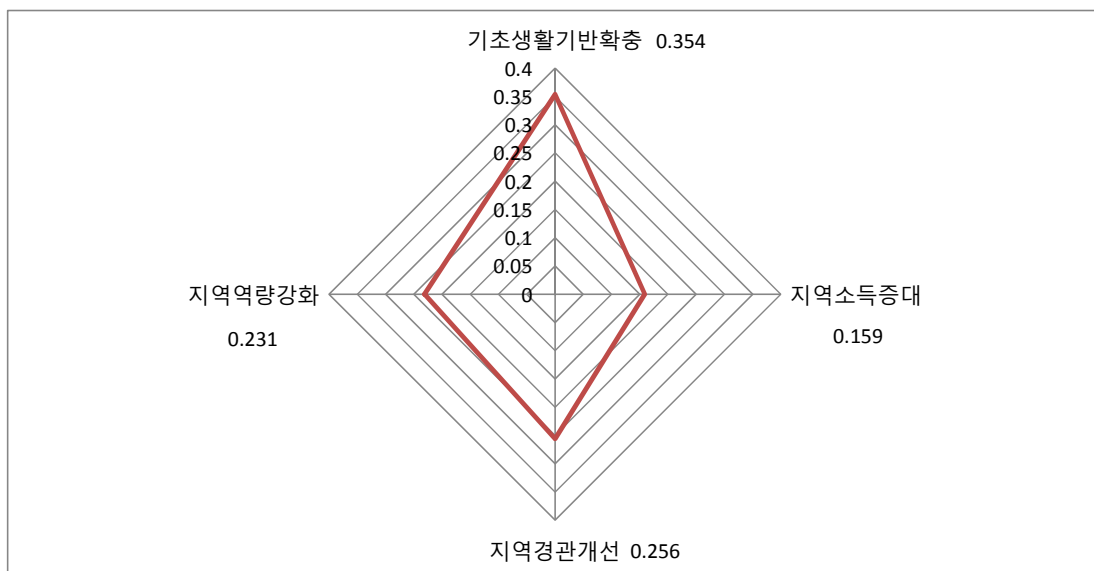
2. 주체별 분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체를 크게 3분류로 시행하는 주체인 지자체 및 공사, 계획하는 주체인 전문가, 운영·관리하는 주체인 지역주민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해당 주체에 따라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도 다르다는 가정 하에 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1) 지자체 및 공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의 경우 기능별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이 0.354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경관개선(0.256), 지역역량강화(0.231), 지역소득증대(0.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및 공사 담당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다른 부분에 비해 지역소득증대사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역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자부담 20%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보니 위험부담을 덜 감수하는 사업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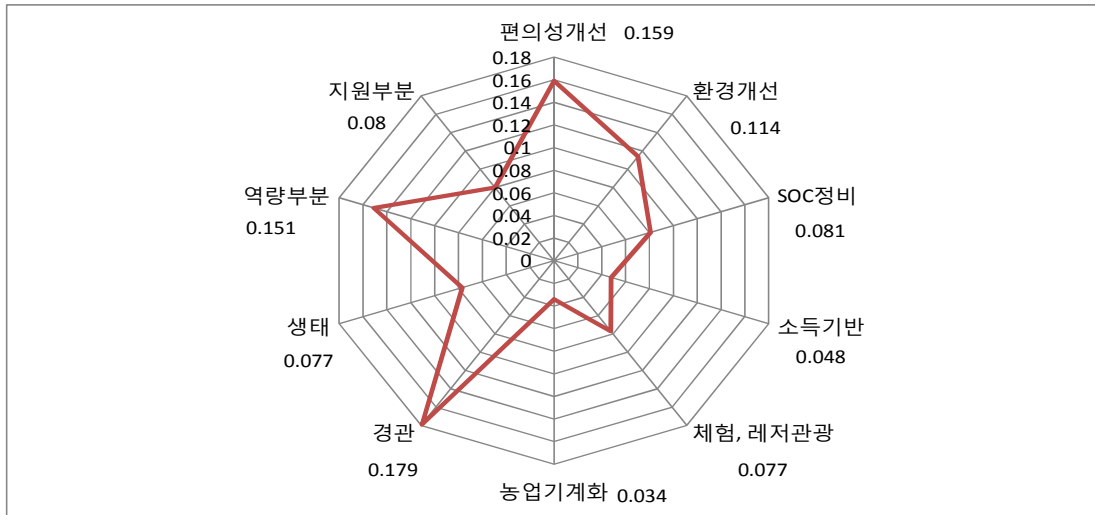


〈그림4-12〉 지자체 및 공사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표4-4〉 지자체 및 공사 담당자 중요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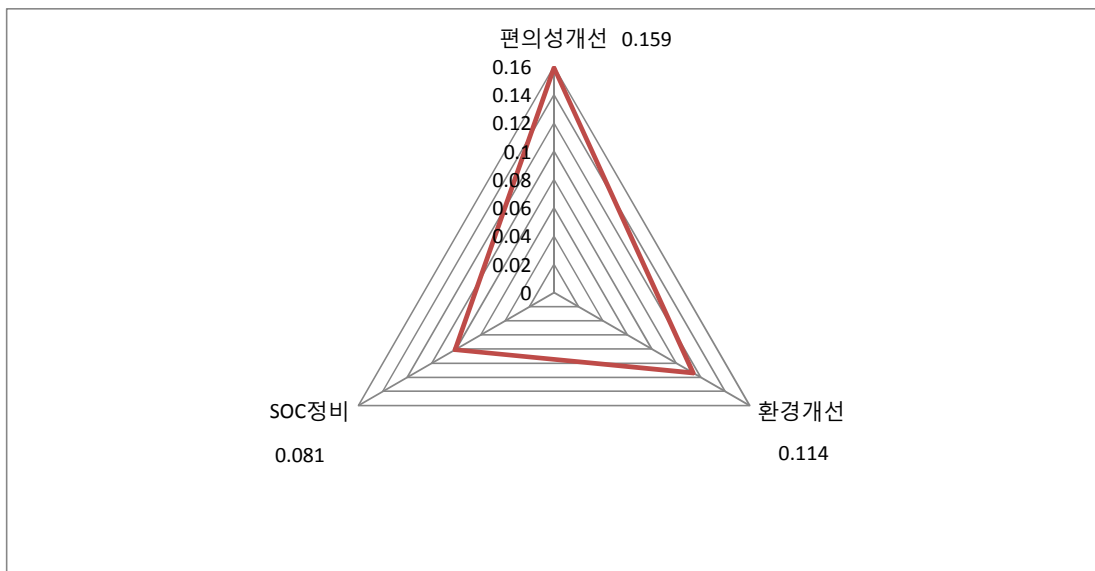
기능별 사업	중요도	사업 분야	중요도	세부사업	중요도
기초생활 기반확충	0.354	편의성 개선	0.159	문화	0.050
				복지	0.083
				전통시장정비	0.026
		환경개선	0.114	주거, 수질환경개선	0.080
				친환경에너지	0.034
		SOC정비	0.081	안전, 재해대비	0.029
				도로, 교통	0.031
				상하수도, 생산기반	0.022
		지역 소득증대	0.159	소득기반	0.048
체험·레저관광	0.077			체험·레저관광	0.077
농업기계화	0.034			농업기계화	0.034
지역 경관개선	0.256	경관	0.179	경관	0.179
		생태	0.077	생태	0.077
지역 역량강화	0.231	역량부분	0.151	교육, 훈련	0.064
				홍보	0.029
				지역활성화	0.058
		지원부분	0.080	사업지원	0.041
				사후지원	0.039

2단계 사업 분야에서는 0.179로 경관사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성개선(0.159), 역량부
 분(0.151)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지자체 및 공사는 농산어촌의 아
 름다운 경관을 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경관개선을 통하여 지역으로의 인구 유
 입 및 방문객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및 환경을
 개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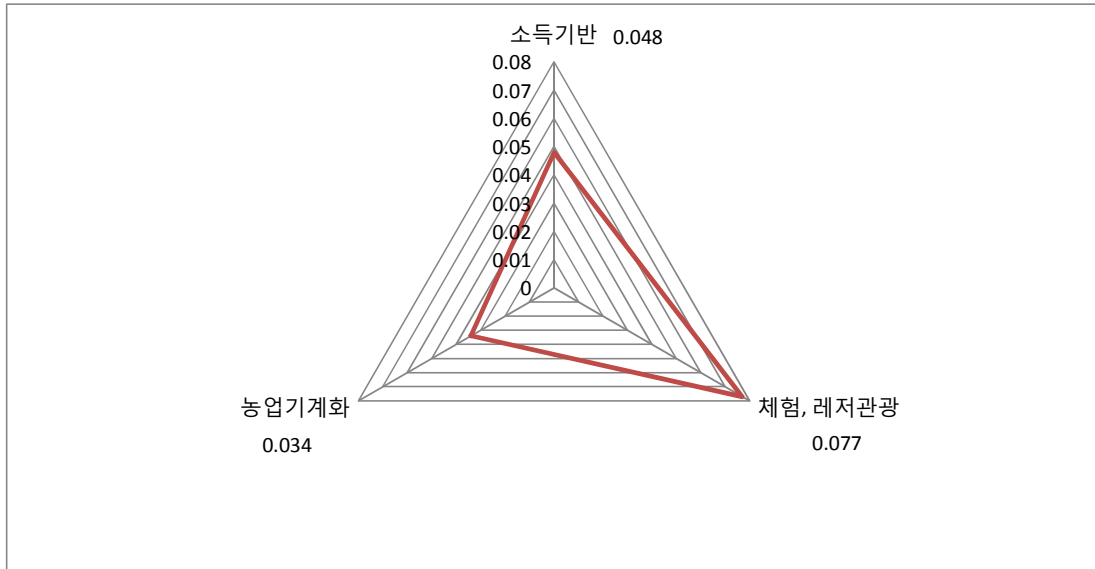
〈그림4-13〉 지자체 및 공사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기초생활기반확충의 사업분야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편의성개선(0.159), 환경개선
 (0.114), SOC정비(0.08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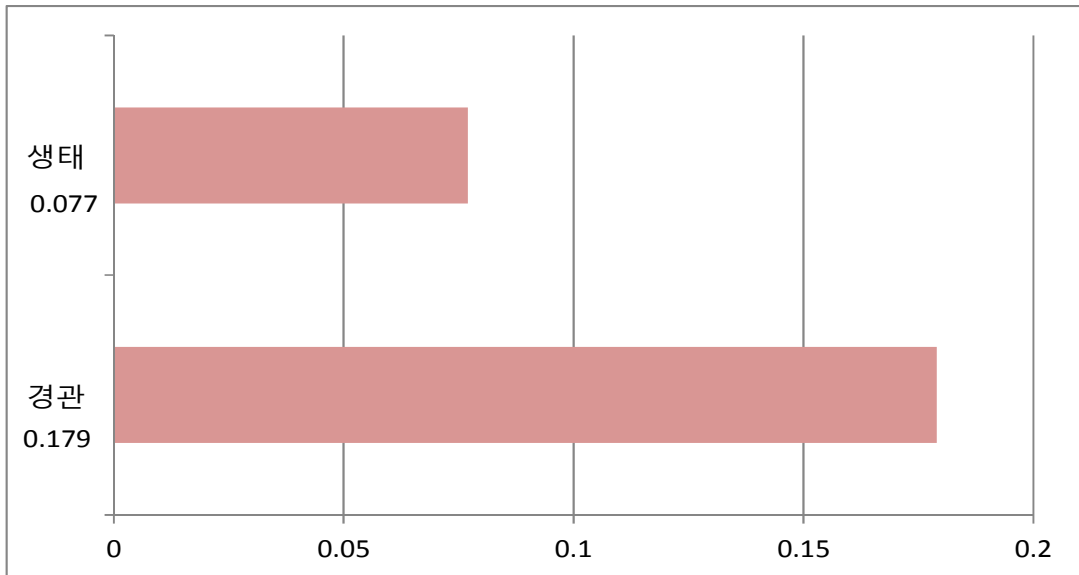
〈그림4-14〉 지자체 및 공사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상대적으로 낮게 중요도가 평가된 지역소득증대의 중요도는 체험·레저관광(0.077), 소득기반(0.048), 농업기계화(0.03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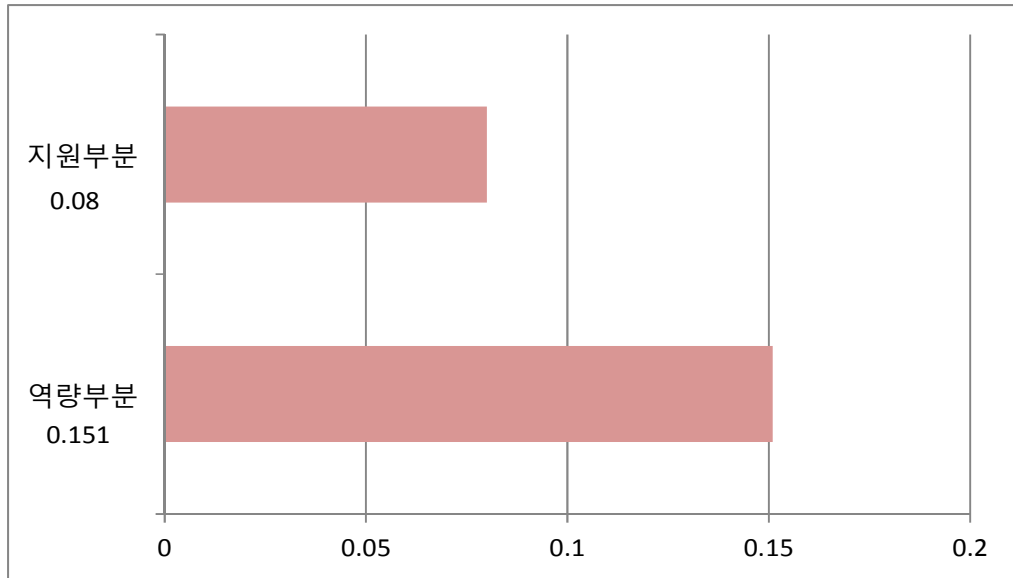
〈그림4-14〉 지자체 및 공사 지역소득증대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자체 및 공사 그룹의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가 나온 지역경관개선분야에서는 0.179로 경관분야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생태(0.07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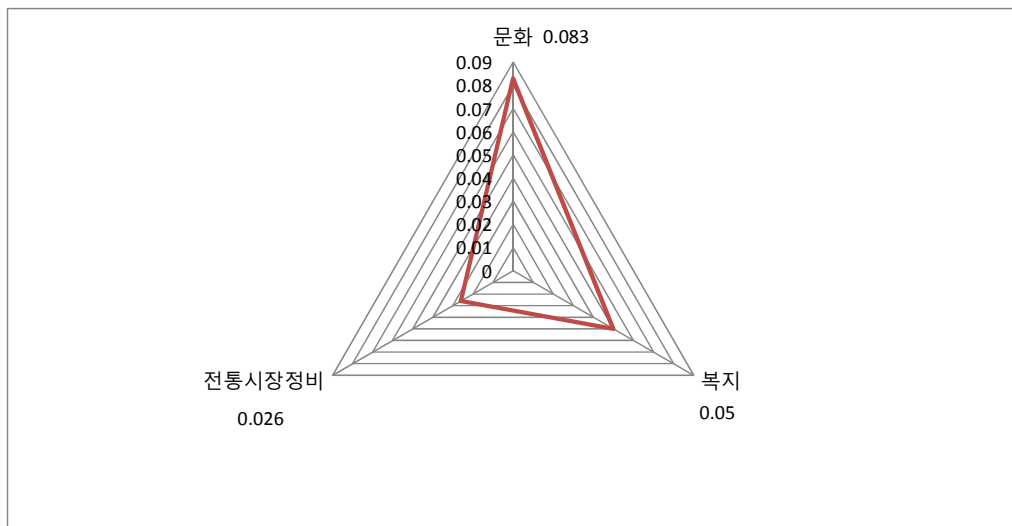
〈그림4-15〉 지자체 및 공사 지역경관개선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에서의 사업분야 중요도 분석결과는 역량부분(0.151), 지원부분(0.08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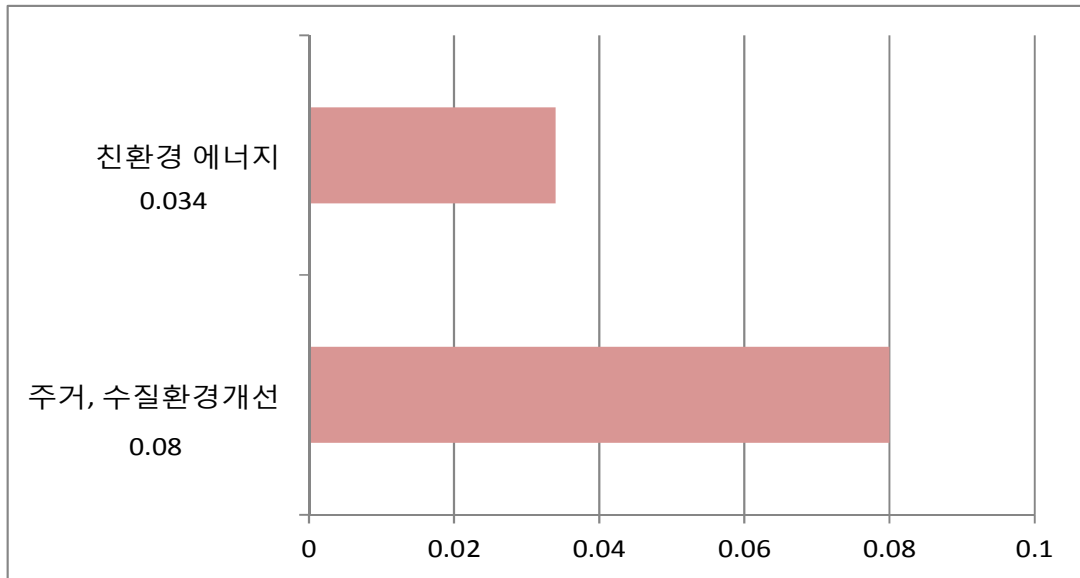
〈그림4-16〉 지자체 및 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3단계 세부사업별로 중요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의 편의성 개선에서는 복지(0.083), 문화(0.050), 전통시장정비(0.02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농산어촌지역에서 최근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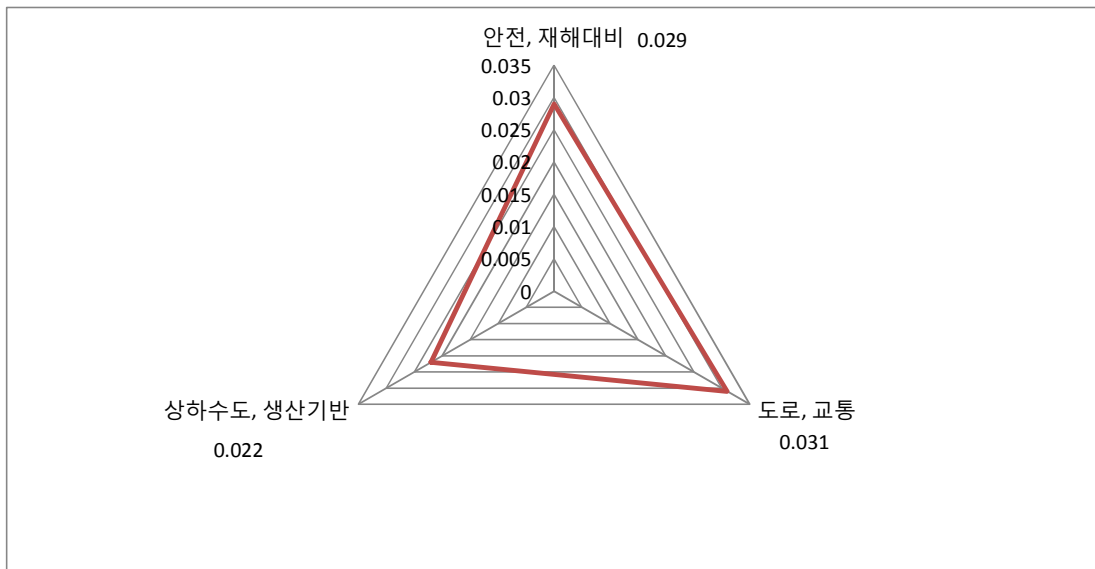
〈그림4-17〉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기초생활기반확충의 환경개선에서는 주거, 수질환경(0.080), 친환경에너지(0.03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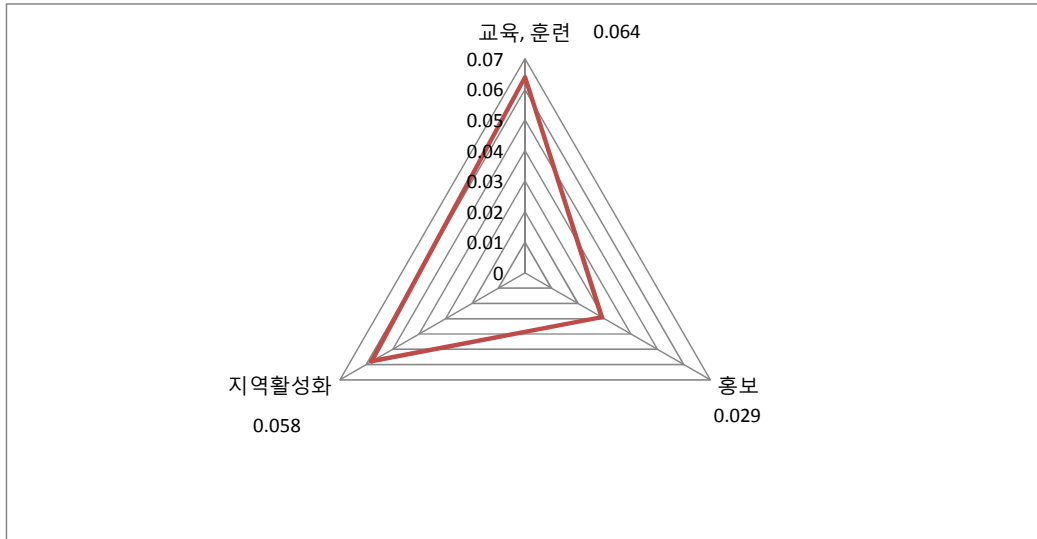
〈그림4-18〉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기초생활기반확충의 SOC정비에서는 도로, 교통(0.031), 안전, 재해대비(0.029), 상하수도, 생산기반(0.022)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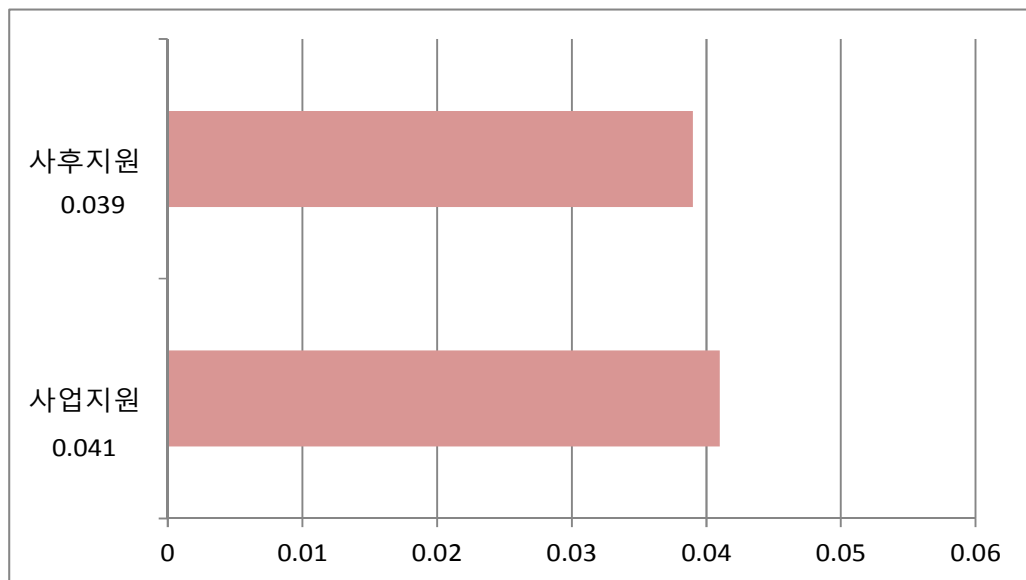
〈그림4-19〉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SOC정비)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의 역량부분에서는 교육·훈련(0.064), 지역 활성화(0.058), 홍보(0.029)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해선 지역주민 스스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역 활성화 컨설팅으로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그림4-20〉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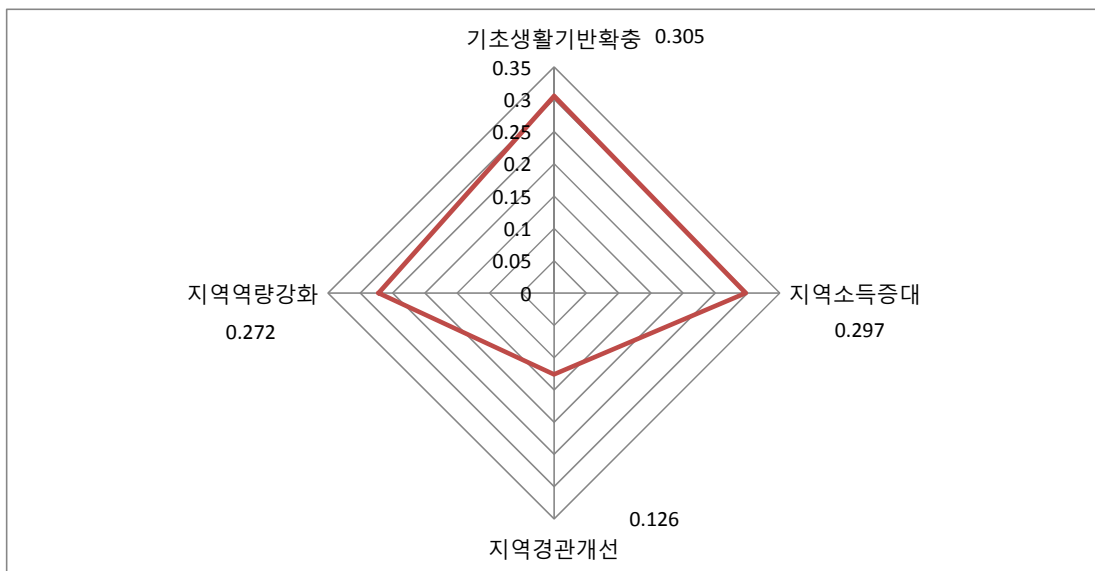
지역역량강화의 지원부분에서는 사업지원(0.041), 사후지원(0.039)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림4-21〉 지자체 및 공사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2) 전문가

전문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예비계획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예비계획을 토대로 법적인 검토와 타당성, 유지·관리 부분까지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기능별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0.305), 지역소득증대(0.297), 지역역량강화(0.272), 지역경관개선(0.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수준이상의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편의성을 개선하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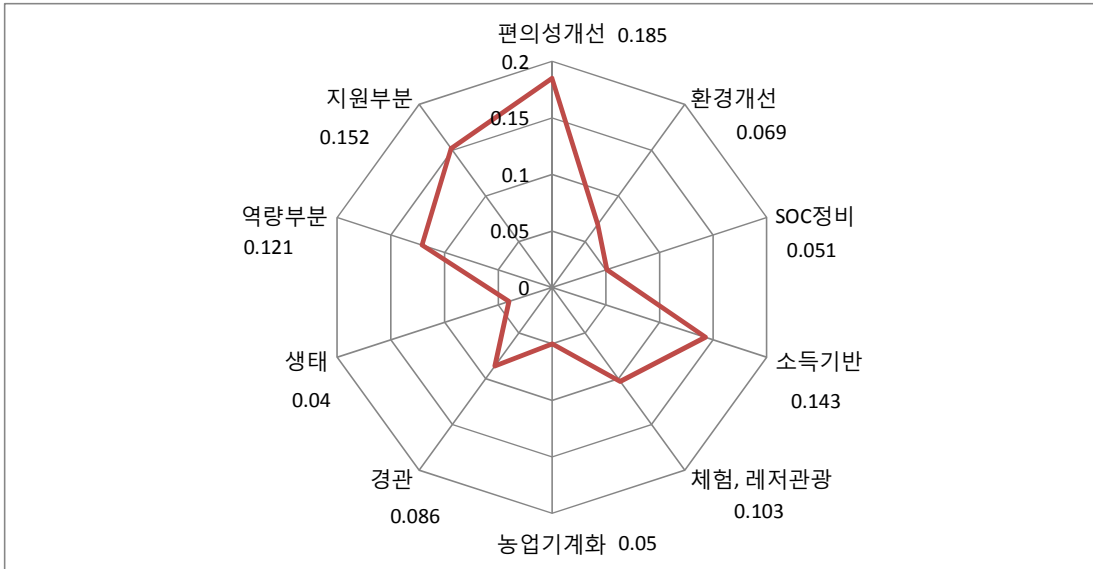


〈그림4-22〉 전문가 그룹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2단계 사업분야에서는 0.185로 편의성 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왔고 다음으로 지원부분(0.152), 소득기반(0.143)순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성 개선부분은 기초생활기반확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원부분은 사업 시행 전·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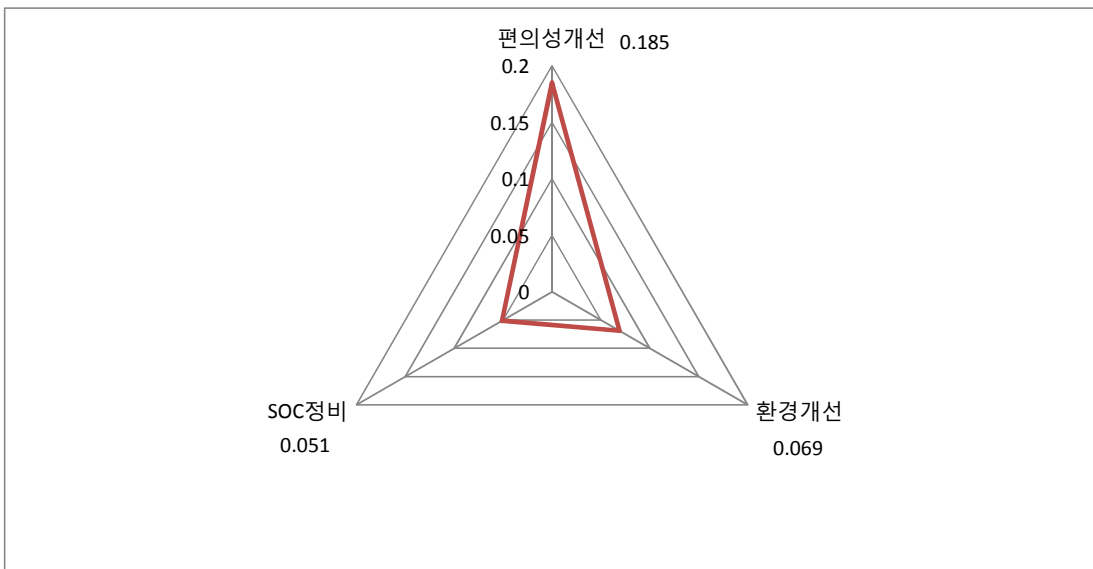
〈표4-5〉 전문가 중요도 분석 결과

기능별 사업	중요도	사업 분야	중요도	세부사업	중요도
기초생활 기반확충	0.305	편의성 개선	0.185	문화	0.081
				복지	0.076
				전통시장정비	0.028
		환경개선	0.069	주거, 수질환경개선	0.027
				친환경에너지	0.043
		SOC정비	0.051	안전,재해대비	0.011
				도로, 교통	0.022
				상하수도, 생산기반	0.017
		지역 소득증대	0.297	소득기반	0.143
체험·레저관광	0.103			체험·레저관광	0.103
농업기계화	0.050			농업기계화	0.050
지역 경관개선	0.126	경관	0.086	경관	0.086
		생태	0.040	생태	0.040
지역 역량강화	0.272	역량부분	0.121	교육,훈련	0.068
				홍보	0.014
				지역활성화	0.039
		지원부분	0.152	사업지원	0.049
				사후지원	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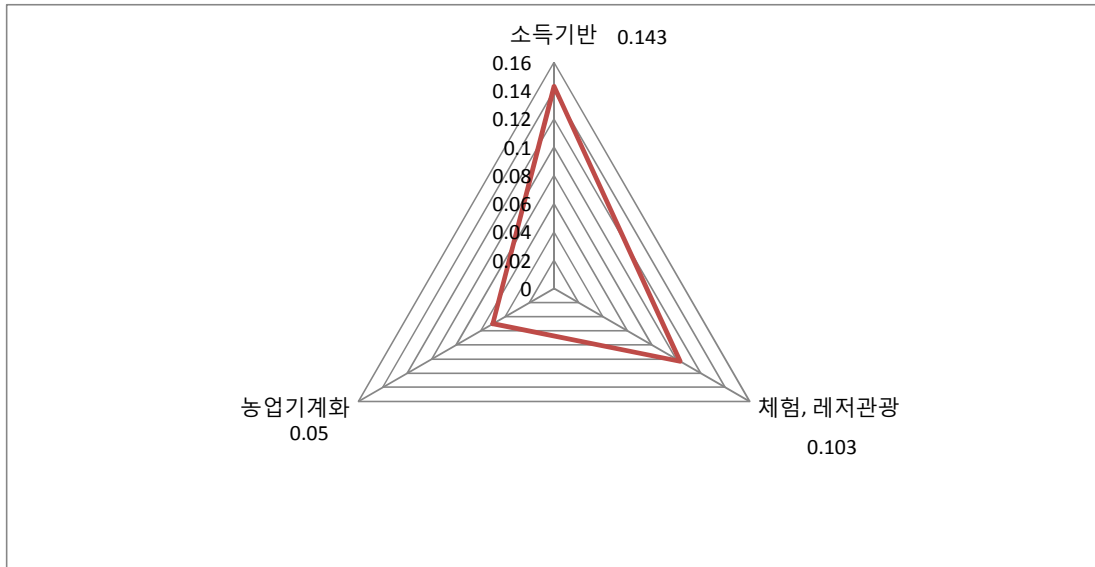
〈그림4-23〉 전문가 그룹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서의 사업분야별 중요도는 편의성개선 (0.185), 환경개선(0.069), SOC정비(0.05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농산어촌지역에서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중요도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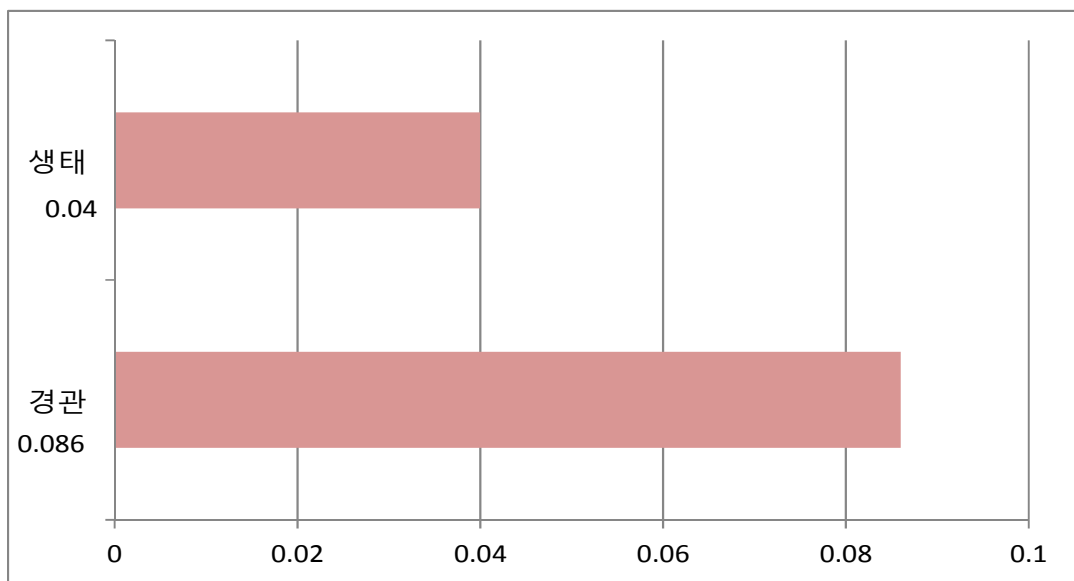
〈그림4-24〉 전문가 그룹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역소득증대 부분에서는 소득기반(0.143), 체험·레저관광(0.103), 농업기계화(0.050)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은 지자체 및 공사 그룹과 달리 지역자원과 농수산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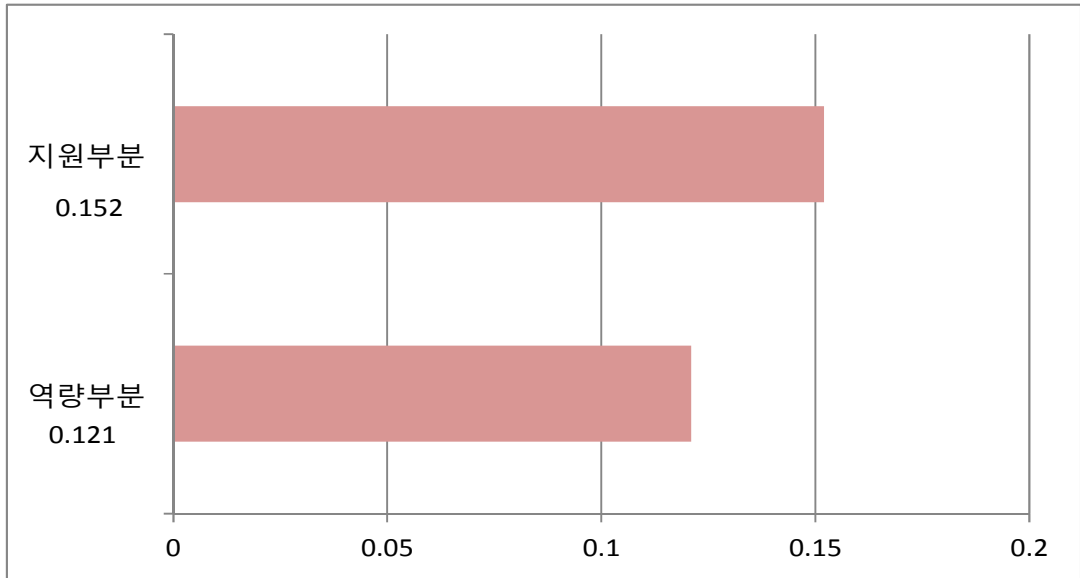
〈그림4-25〉 전문가 그룹 지역소득증대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별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나온 지역경관개선 사업은 경관(0.086), 생태(0.040)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고 농산어촌의 생태보다는 경관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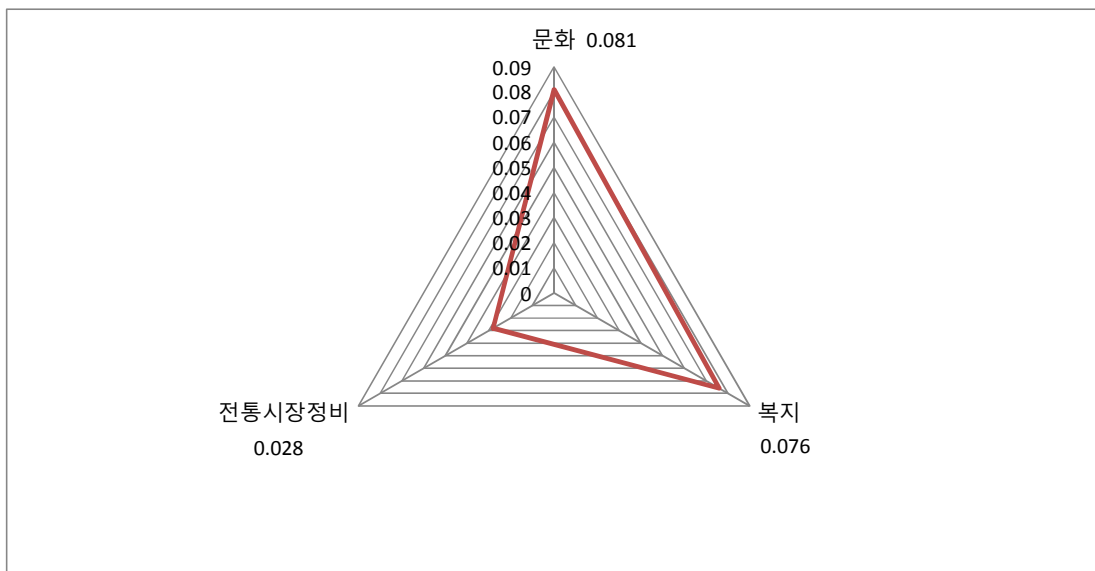
〈그림4-26〉 전문가 그룹 지역경관개선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지원부분(0.152), 역량부분(0.121)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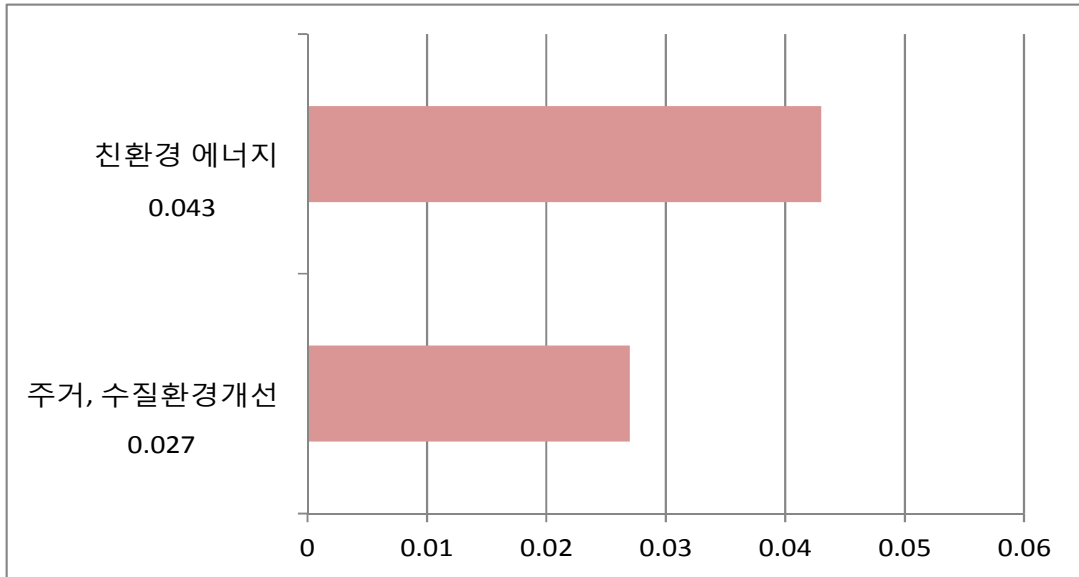
〈그림4-27〉 전문가 그룹 지역역량강화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3단계 세부사업별로 중요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서는 문화(0.081), 복지(0.076), 전통시장정비(0.028)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최근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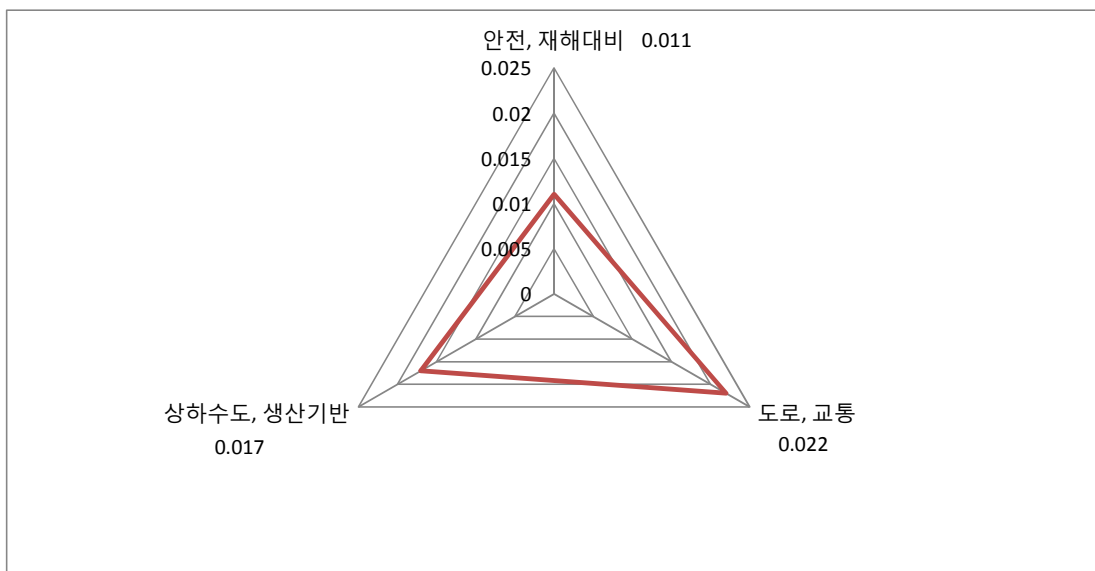
〈그림4-28〉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친환경에너지(0.043), 주거·수질환경개선(0.027)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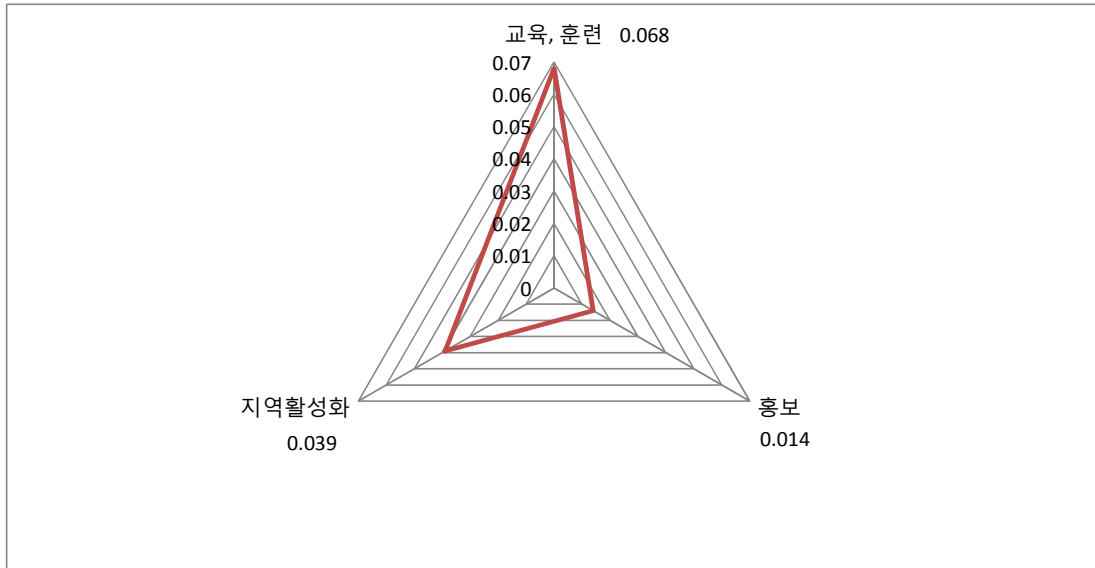
〈그림4-29〉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SOC정비 부분에서는 도로·교통(0.022), 상하수도·생산기반(0.017), 안전·재해대비 (0.011)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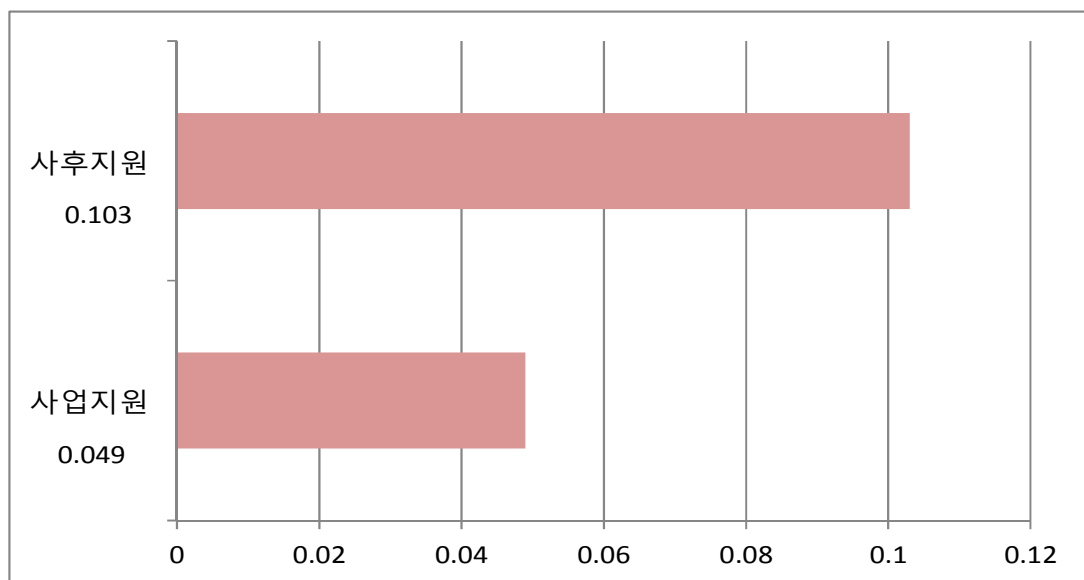
〈그림4-30〉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SOC정비)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부분의 역량부분에서는 교육·훈련이 0.068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지역활성화(0.039), 홍보(0.01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의 역량부분에서도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홍보사업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홍보마케팅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한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예측된다.



〈그림4-31〉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지원부분에서는 사후지원(0.103), 사업지원(0.049)로 도출되었으며 사후 지원을 통해 사업 이후 운영, 유지관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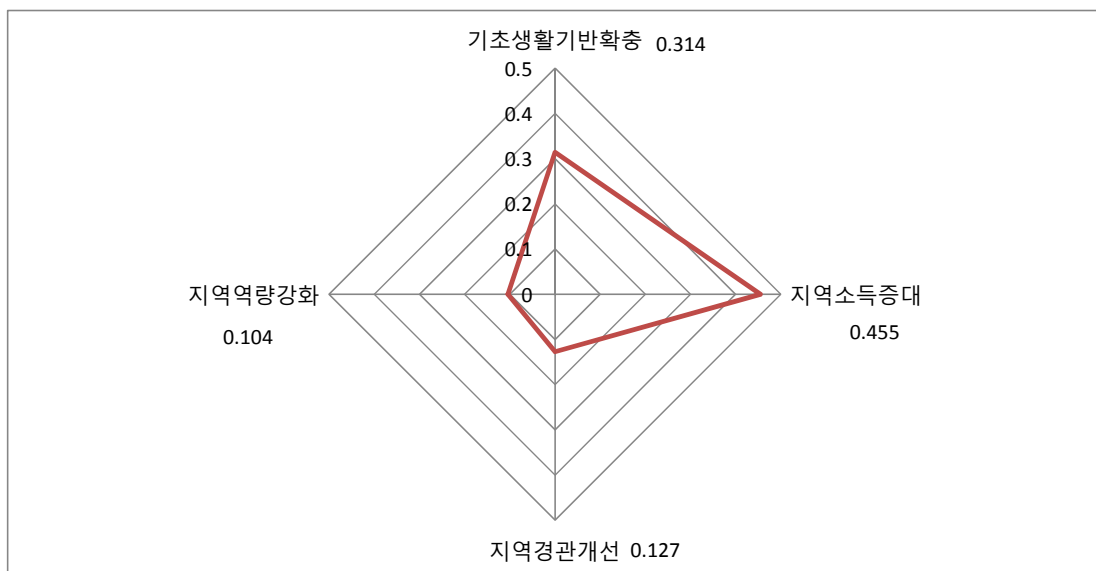
〈그림4-32〉 전문가 그룹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3) 지역주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계획반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며 향후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1단계 기능별사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소득증대부분이 가장 높은 0.455의 중요도를 보였고, 기초생활기반확충(0.314), 지역경관개선(0.127), 지역역량강화(0.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가장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스스로가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그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사업 종료 이후 운영,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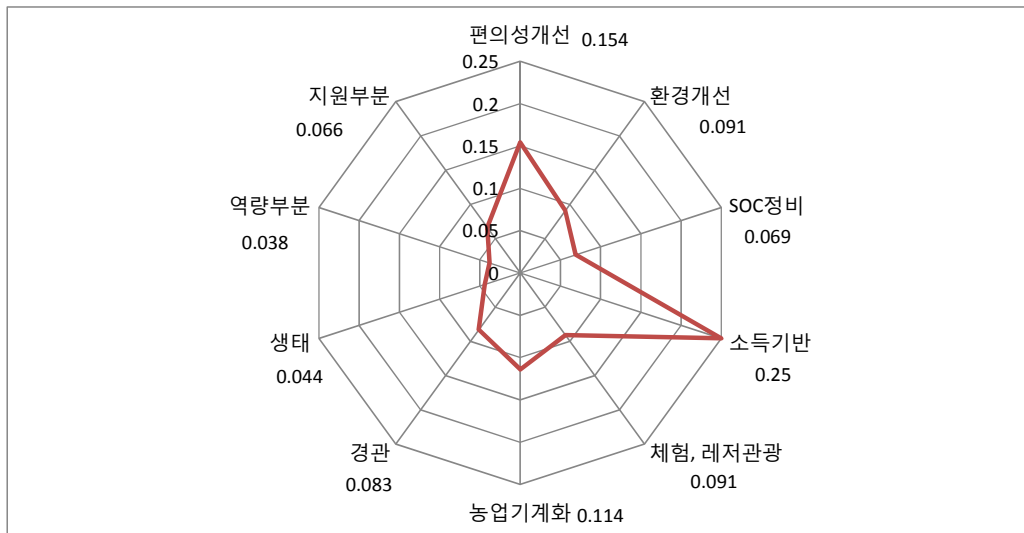


〈그림4-33〉 지역주민 그룹 기능별사업 중요도 결과

〈표4-6〉 지역주민 중요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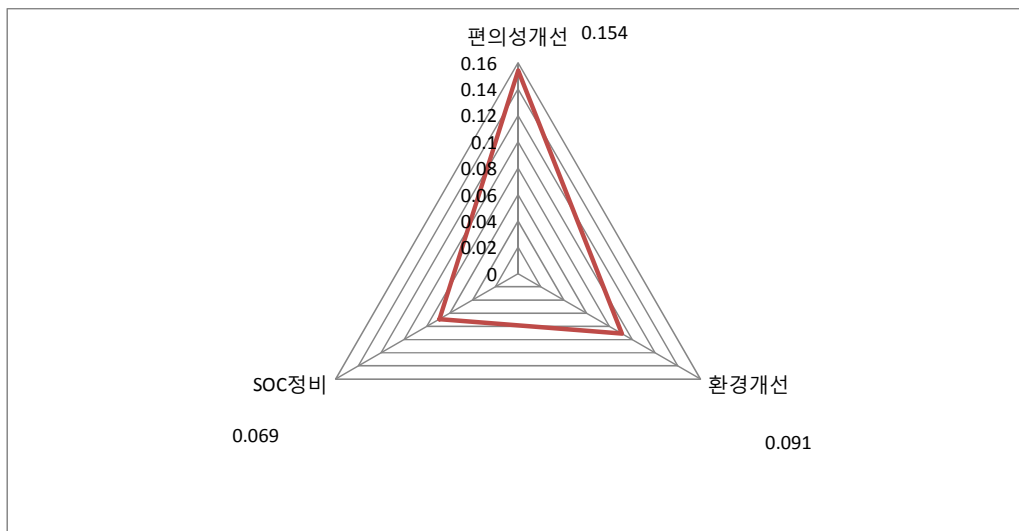
기능별 사업	중요도	사업 분야	중요도	세부사업	중요도
기초생활 기반확충	0.314	편의성 개선	0.154	문화	0.076
				복지	0.054
				전통시장정비	0.024
		환경개선	0.091	주거, 수질환경개선	0.032
					친환경에너지
		SOC정비	0.069	안전, 재해대비	0.010
					도로, 교통
상하수도, 생산기반	0.021				
지역 소득증대	0.455	소득기반	0.250	소득기반	0.250
		체험·레저관광	0.091	체험·레저관광	0.091
		농업기계화	0.114	농업기계화	0.114
지역 경관개선	0.127	경관	0.083	경관	0.083
		생태	0.044	생태	0.044
지역 역량강화	0.104	역량부분	0.038	교육, 훈련	0.011
				홍보	0.008
				지역활성화	0.020
		지원부분	0.066	사업지원	0.024
				사후지원	0.042

2단계 사업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사업분야는 소득기반(0.250)이고, 편의성개선(0.154), 농업기계화(0.114)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능별사업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지역소득증대 사업과 연결되어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농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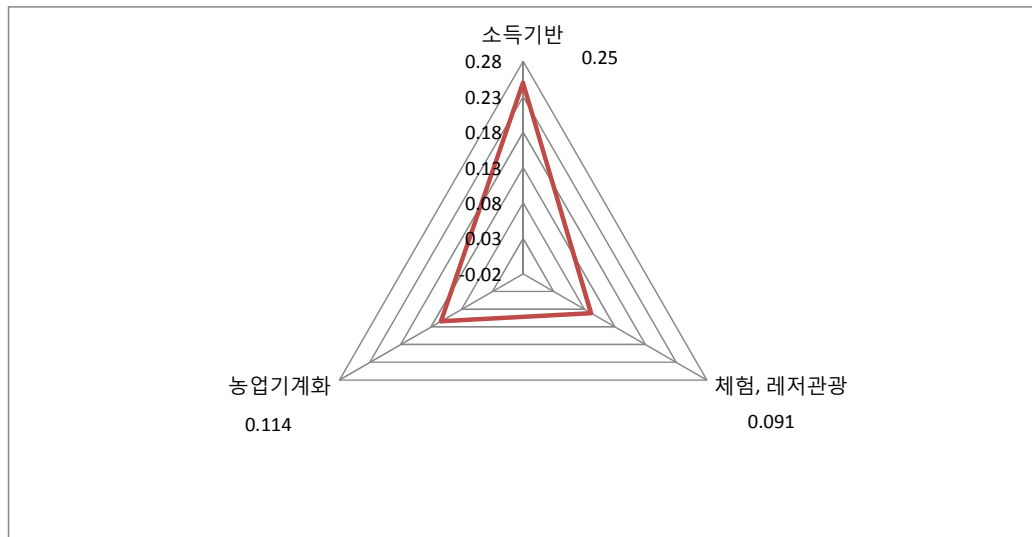
〈그림4-34〉 지역주민 그룹 사업분야 중요도 결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서의 사업분야별 중요도는 편의성개선(0.154) 환경개선(0.091), SOC정비(0.069)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 되었다. 이 또한 타 그룹과 마찬가지로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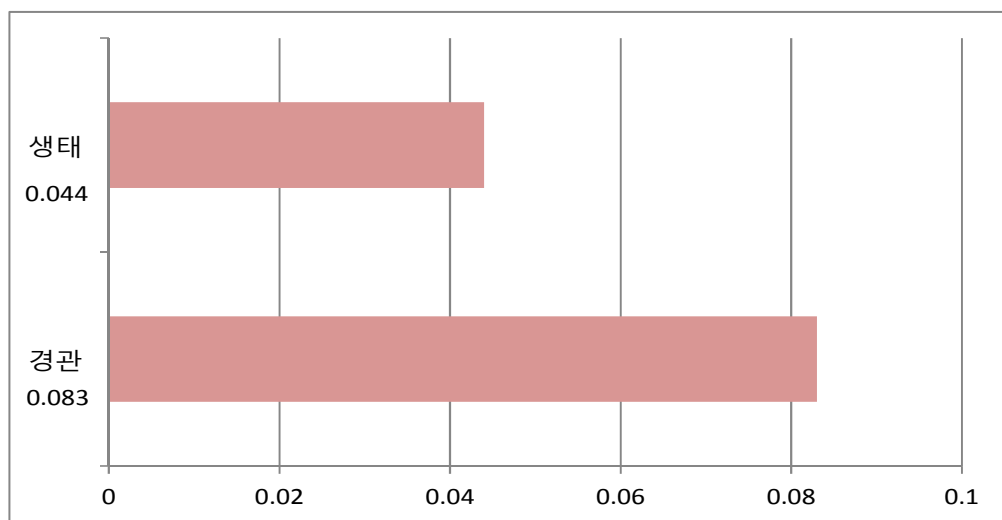
〈그림4-35〉 지역주민 그룹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요도 결과

지역소득증대부분에서는 소득기반(0.250), 농업기계화(0.114), 체험·레저관광(0.091)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소득기반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농수산물을 로컬 푸드와 연계하고 저장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산업이 주력인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이 농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접근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나타난 중요도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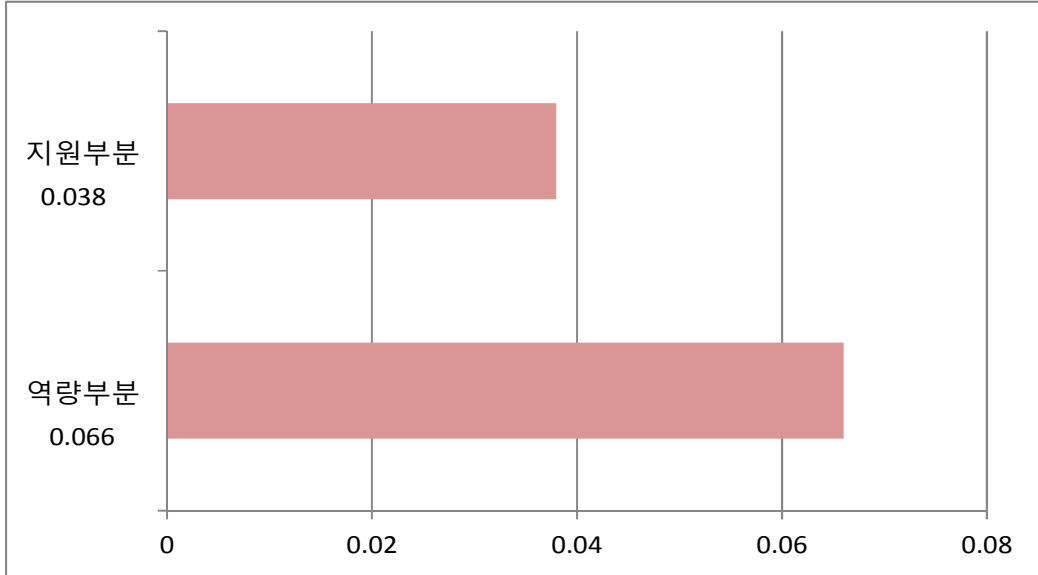
〈그림4-36〉 지역주민 그룹 지역소득증대 중요도 결과

지역경관개선사업에서는 경관(0.083), 생태(0.044)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고 생태보다는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여 방문객을 높여 지역소득증대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출된 중요도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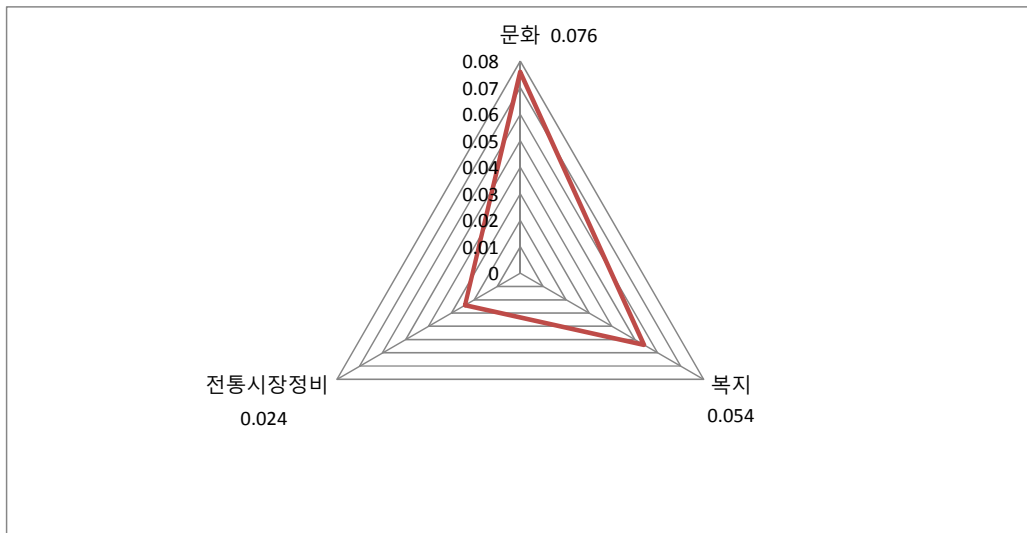
〈그림4-37〉 지역주민 그룹 지역경관개선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부분에서는 지원부분(0.066), 역량부분(0.038)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는데 교육·훈련 보다는 지원 위주의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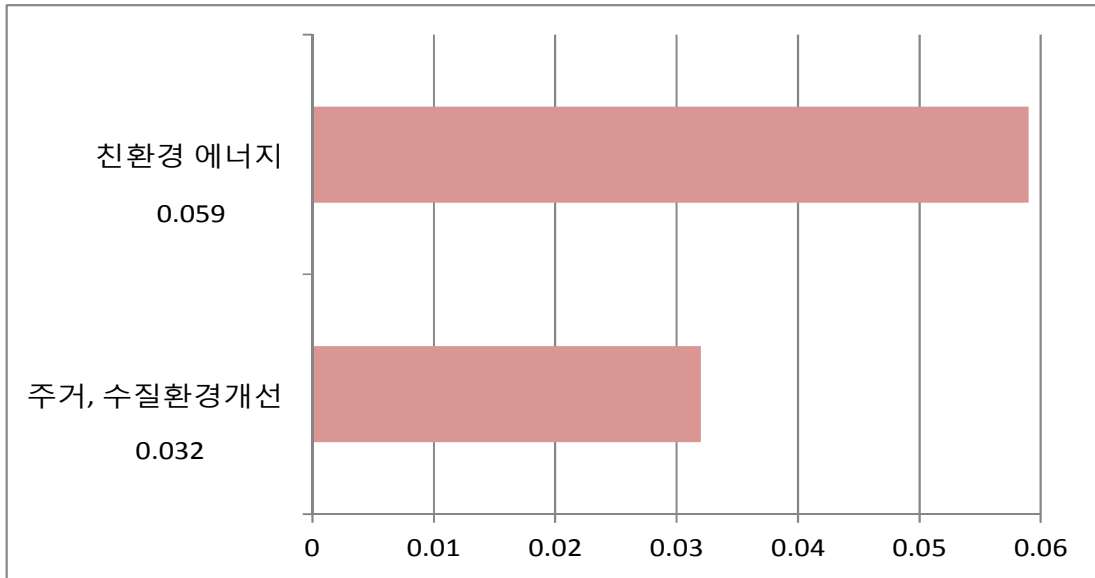
〈그림4-38〉 지역주민 그룹 지역역량강화 중요도 결과

기초생활기반확충의 편의성개선 부분에서는 문화(0.076), 복지(0.054), 전통시장정비 (0.02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는데 타 그룹과 마찬가지로 최근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중요도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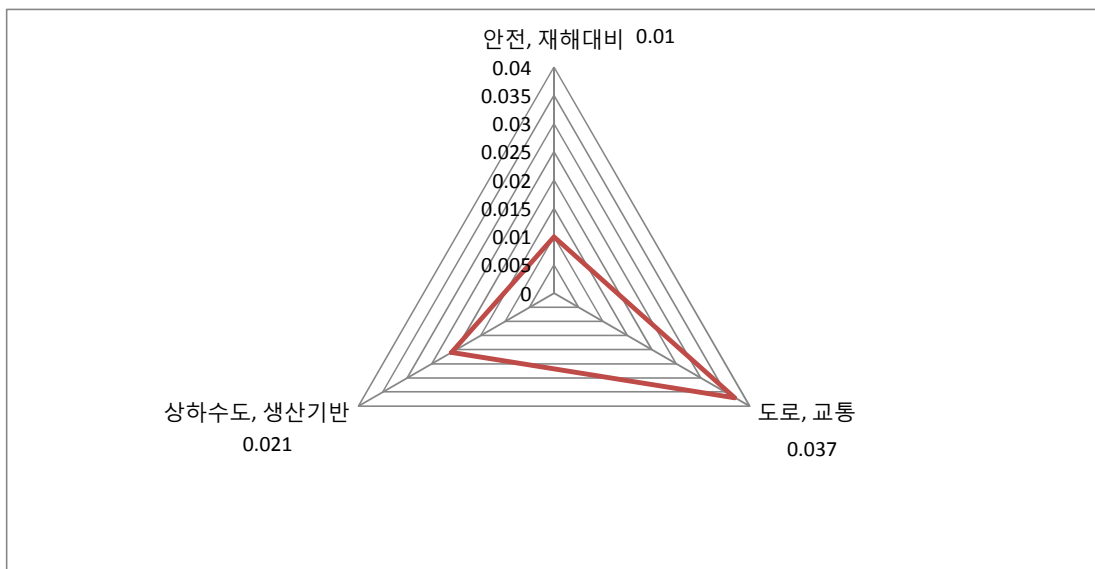


〈그림4-39〉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편의성개선) 중요도 결과

환경개선 부분은 친환경에너지(0.059), 주거·수질환경개선(0.032)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SOC정비 부분은 도로교통(0.037), 상하수도·생산기반(0.021), 안전·재해대비(0.010)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게 도출된 것은 생활, 주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이 농산어촌지역에도 타 사업을 통하여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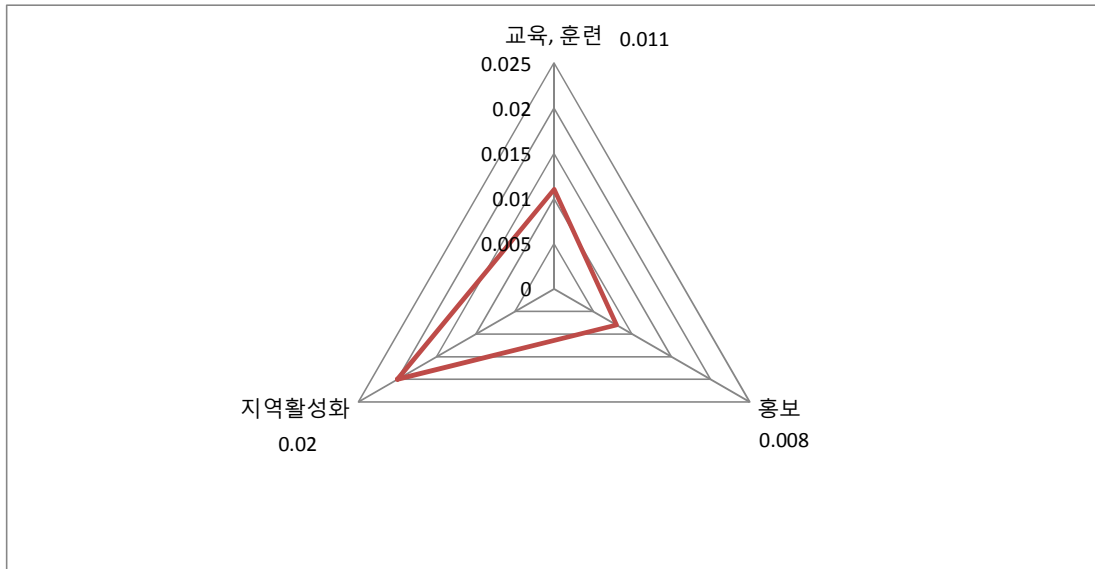


〈그림4-40〉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환경개선)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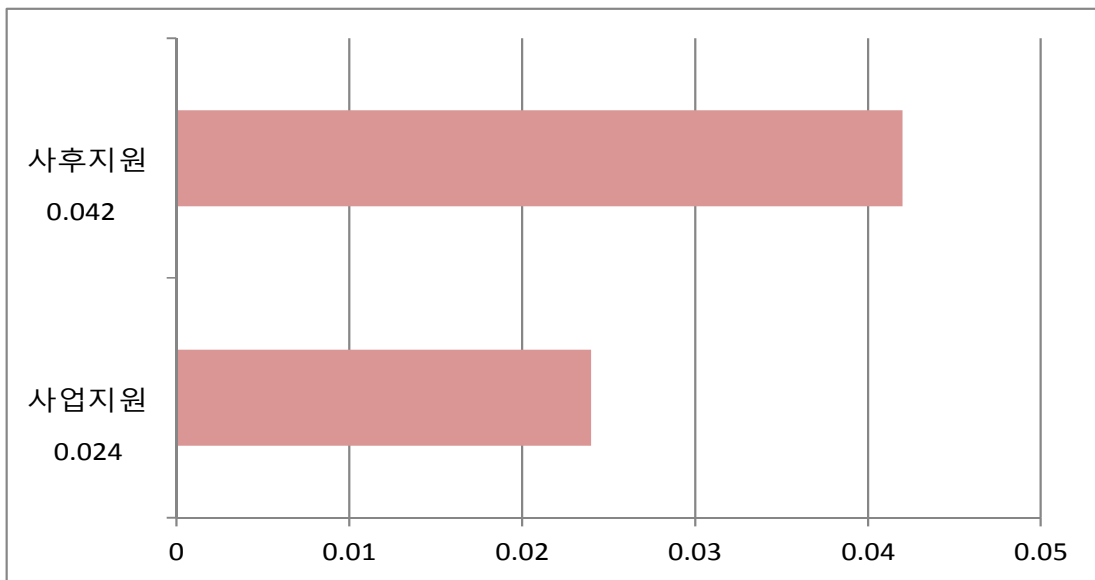


〈그림4-41〉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SOC정비) 중요도 결과

지역역량강화에서의 역량부분 세부사업 중요도는 지역활성화(0.020), 교육·훈련(0.011), 홍보(0.0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부분에서는 사후지원(0.042), 사업지원(0.024) 순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역량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고 지원부분은 지자체 및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향후 사업 이후 운영·유지관리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42〉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역량부분) 중요도 결과



〈그림4-43〉 지역주민 그룹 세부사업(지원부분)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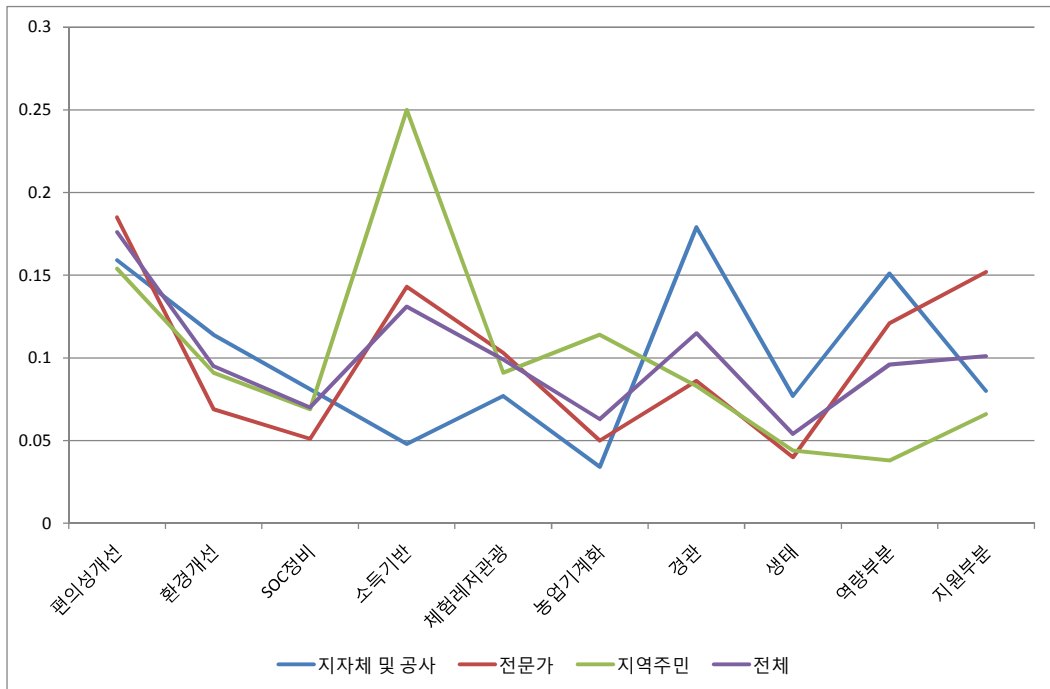
3. 종합분석결과

주체별로 각 기능별 사업에 따른 중요도 분석값을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부분 중요도에서는 편의성 개선이 지자체 및 공사 0.159, 전문가 0.185, 지역주민, 0.154로 3분류 주체 전부 높게 중요도가 나타났다. 지역소득증대부분 중요도에서는 지자체 및 공사가 체험·레저관광이 0.077로 높게 나왔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은 소득기반이 각각 0.143, 0.250으로 높게 중요도가 나타났다. 지역경관개선분야에서는 3분류 주체 모두가 경관분야가 각각 0.179, 0.086, 0.083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역량강화부분에서는 지자체 및 공사가 역량부분 0.151로 중요도가 높게 나왔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은 지원부분이 각각 0.152, 0.066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분석, 주체별 분석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의 편의성 개선과 지역소득증대의 소득기반사업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및 공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춰 기초생활기반확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소득증대 사업의 경우 시설물 설치비의 20% 자부담이라는 요건이 있고 불확실한 사업내용과 운영, 경영 경험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중요도가 낮게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복지분야에도 관심도는 높지만 당장 눈앞에 소득이 오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득기반사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간적 입장인 전문가의 경우에는 편의성 개선 사업의 중요도를 높게 책정하고 다음으로 소득기반사업의 중요도를 높게 책정하여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그룹보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부분의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사업이후 지속적인 유지·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선 S/W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시행 시 계획단계부터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S/W부분과 H/W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체별로 다른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4-44〉 종합분석 중요도 결과



〈표4-7〉 주체별 사업분야 중요도 총괄표

기능별사업	사업분야	지자체 및 공사	전문가	지역주민
기초생활 기반확충	편의성개선	0.159	0.185	0.154
	환경개선	0.114	0.069	0.091
	SOC 정비	0.081	0.051	0.069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0.048	0.143	0.250
	체험·레저관광	0.077	0.103	0.091
	농업기계화	0.034	0.050	0.114
지역경관개선	경관	0.179	0.086	0.083
	생태	0.077	0.040	0.044
지역역량강화	역량부분	0.151	0.121	0.038
	지원부분	0.080	0.152	0.066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정부는 지난 2010년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역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수립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문제점 극복, 다원적 기능 발굴 등 농촌지역 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는 반면,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시설의 유희화, 주민갈등, 지역역량강화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이진희, 2018)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이라 그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처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집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각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중요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이후 시행되어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전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사업 완료지구 현장을 점검하여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활용 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와 농촌마을, 그리고 수탁기관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여 각 대상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선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인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와 계획주체인 전문가, 운영·관리주체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

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더, 충청도, 제주도 등 총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을 통해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추가가 필요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에서 3개 사업분야 9개 세부사업, 지역소득증대에서 3개의 사업분야, 지역경관개선에서 2개의 사업분야, 지역역량강화에서 2개의 사업분야 5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사업분야와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AHP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업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 및 공사에서는 경관(0.179), 편의성개선(0.159), 역량부분(0.151), 환경개선(0.114), SOC정비(0.081), 지원부분(0.080), 체험·레저관광(0.077)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고 운영·관리주체인 지역주민에서는 소득기반(0.250), 편의성개선(0.154), 농업기계화(0.114), 체험·레저관광, 환경개선(0.091), 경관(0.0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획 주체인 전문가에서는 편의성개선(0.185), 지원부분(0.152), 소득기반(0.143), 역량부분(0.121), 체험·레저관광(0.103), 경관(0.086), 환경개선(0.069)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 및 공사에서는 농산어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그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지역소득증대 사업의 경우 지역의 자부담 20%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전문 경영인이 아닌 지역주민들은 시설조성 이후에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주민들은 국비+지방비로 매칭된 사업비를 토대로 지역자원과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하지만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후 필요한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외부 컨설팅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분석결과 토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각 주체들의 상이한 의견을 정리하여 그것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각 사업들 간의 연계성 부분과 사업 이후 운영·유지·관리 측면의 문제를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심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할 것이며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의 조직적 참여와 활용 및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면한 주민 숙원 해소가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사업목표 수립과 이에 따른 계획의 구성이 필요하고 계획수립 시에는 대상지에 한

정된 계획이 아닌 해당 시·군 더 나아가 인근 시·군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과 상품개발, 방문객 유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도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타 시·도 지역의 농촌마을과는 구분되는 농촌공간의 특성을 갖고 있어(마을의 규모, 마을조직 및 운영방식,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극대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진희, 2018)

과거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농정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분산추진 하였으나 2014년 마을만들기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를 2016년 마을활력과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조직을 일원화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제주시는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마을사업 현장컨설팅, 선진지시찰, 정례회의, 신규사업 컨설팅, 현장포럼 참여 등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매력있는 포럼”을 구성 현장포럼 참여, 선진지시찰, 정례회의, 마을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풀어야 과제는 있다. 첫째 행정 지원 중심에서 주민참여 중심으로 자립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협력을 통해 행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행정지원 의존형에서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발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에서는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을 마을과 연계하여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방향 제시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단계가 필요하다.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몇몇 리더들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소통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마을사업을 시작할 경우 추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 주민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애물단지 사업이 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의 필요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에 적합한 인재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는 휴먼웨어가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력에만 의존하여 추진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을 내부에서는 역량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사업운영 조직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혹은 마을 내부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현장활동가 양성,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는 예산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과 위주의 결과 분석 이전에 사업의 중요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처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집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각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중요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임에도 지금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설문서가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크거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소규모 사업 및 신규로 계획되어지는 특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용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지역상황 및 여건 고려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지를 전국6개 권역, 3분류의 주체별로 나누어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고려가 되지 못했음은 연구의 한계로 밝히면서, 향후 진행되는 일반농산어촌사업 관련 중요도 설정을 위한 연구에서는 세부사업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신길(2018). 지속가능한 농촌중심지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 -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태일(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델파이기법과 AHP를 이용하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문·채수원(1996).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AHP 활용에 관한 연구
- 김용진(2018).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의식 및 평가 : 장수군 장계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윤섭(2013). 관광지 입지결정요인 개발과 적용에 관한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농림축산식품부(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 도종원(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원시설 유형별 지역주민 만족도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진(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박주영(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방길현(2008).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방안 : 전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환성(2014). 공간분석과 계층적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환(201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지표설정을 위한 중요도 분석-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령 외(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의근(2007). AHP를 활용한 정보통신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민경(2007). 주민이 지각한 농촌지역개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주민참여간의 관계-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유(2013).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중심으로 -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중호(201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 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현철(2016).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연구 : 마을단위 중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가치 추정: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통하여-부산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근·윤민석(1994). AHP기법을 이용한 마케팅 의사결정, 석정 출판사
- 이수현(2019). 농촌경관계획수립과 경관사업의 위상과 특징에 관한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환(2010). AHP법을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항목별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재(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사업선정과 우선순위결정에 관한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 이진희(2009).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4집,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159-184
- 이진희(2013a).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 성공사례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3c). 세계자연유산마을 특성화 연구-제주 선홀리 마을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2017b).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8). 제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활성화방안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완료지구(웃뜨르권역, 판포권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성희(2017). 국립공원 명품마을의 성공요인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AHP를 중심으로, 34
- 임호주(2008). 어촌관광개발 정책이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중심으로 -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근태·조용곤·강현수(2003).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 진언주(2014). 농촌마을 개살사업의 기본계획 내용분석 :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중생(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원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담양군 창평권역을 중심으로-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미연(2018).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 하동군 옥종면을 사례로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중훈(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분석-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성현(2011). AHP를 이용한 농촌 관광단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Haker, P.T. and L.G Vargas(1987).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33(11):1383-1403

Saaty, T. 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Inc

Saaty, T. L.(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Science Review, 23(3):64-68

Saaty, T. L.(1983). Priority Setting in complex Problems, IEEE Transaction on Engineering M

부록(설문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중요도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성일입니다.

이 설문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및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설정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가지 기능별 사업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능별 사업별 세부사업들간 중요도를 전문가,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지역주민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 각 항목별 중요도를 설정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사업시행 및 운영, 유지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도 설정을 위한 조사는 1~2차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기존 세부사업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수렴하고 2차 조사는 추가적으로 도출된 사업들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최종 중요도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중요도 도출을 위해 가치있는 소견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중요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4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연구자 : 고성일
지도교수 : 임화순

M.P. 010-6323-0199 E-mail : kkkkosi@naver.com

■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소속			
응답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분야 연구(근무) 기간		최종학력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주거·수질환경 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로컬푸드 반가공시설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덤벙정비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 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본 조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사업중 세부사업 항목별 중요도 설정을 위한 설문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위의 사업설명을 참고하시어 기존사업 외에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4개의 기능별 사업별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중요도 설정을 AHP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성일입니다.

이 설문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별 및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가지 기능별 사업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능별 사업별 세부사업들간 중요도를 전문가,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지역주민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 각 항목별 중요도를 선정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사업시행 및 운영, 유지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평가지표는 1차 설문을 통해 수렴된 지표인 기초생활기반확충(친환경에너지), 지역소득증대(레저, 농업기계화), 지역역량강화(사후지원) 항목과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 분류를 종합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지표들간의 중요도를 구하고자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응답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중요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5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연구자 : 고성일
지도교수 : 임화순

M.P. 010-6323-0199 E-mail : kkkkosi@naver.com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용어정의 및 설명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예 :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다목적회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소득증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예 : 특산물 가공시설, 폐교활용, 체험관광시설, 야영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 지역경관개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예 : 지붕,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정비, 간판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홍보마케팅

예 : 주민교육, 리더교육, 브랜드개발, 홍보책자 발간, 지역활성화 컨설팅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및 세부사업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주거·수질환경 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로컬푸드 반가공시설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덤벙정비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 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설문지의 구성

이 설문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4가지 기능별 사업인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별로 중요도와 각 기능별 사업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비교되는 두가지 평가 항목(지표)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O표 해 주십시오, 아래의 참고사항과 설문 예시를 잘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기준

척도	정의	의미
1	동등하게 중요	두 개의 지표가 똑같이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더욱 더 중요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더욱 더 중요함
7	대단히 더 중요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	한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 2, 4, 6, 8 은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수들의 중간 정도 중요성을 나타냄

■ 설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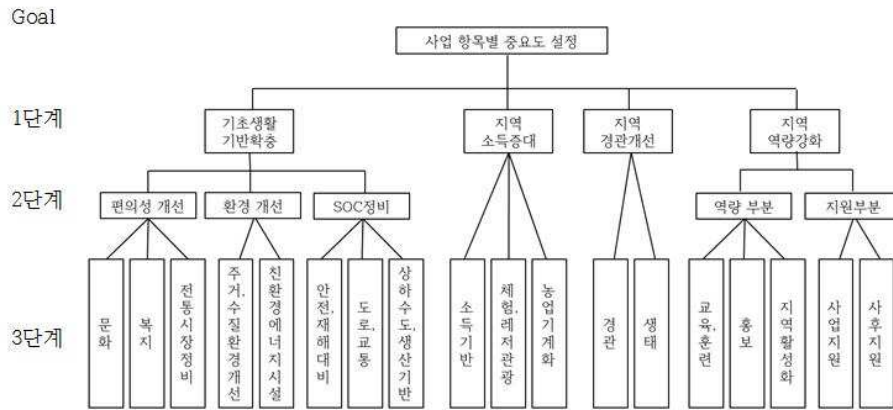
▷기초생활기반확충 중 “문화”가 “복지”보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문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복지

■ AHP의 일관성 검증

AHP에서 일관성 검증은 응답자가 설문지내에서 일관성을 갖고 비교하였는지, 그리고 응답자의 응답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AHP가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판단이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A요인이 B요인보다 중요하다고 (A>B)고 응답하고, B요인이 C요인보다 중요하다(B>C)고 응답하였으나 C요인이 A요인보다 중요하다(C>A)고 응답한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관성이 부족한 설문지는 설문내용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 설정에 대한 전체 평가지표 구성



■ 중요도 설정은 위의 그림에서 3단계까지 진행됩니다.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고려요소에 해당됩니다.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측정지표
기초생활 기반확충	편의성 개선	문화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복지	-지역주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전통시장정비	-지역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환경개선	주거, 수질환경개선	-지역의 주거, 수질환경을 개선
		친환경에너지	-지역내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설치, 활용
	SOC정비	안전,재해대비	-재해 및 안전에 대한 시설 설치
도로, 교통		-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교통 환경 개선	
상하수도, 생산기반		-지역 상하수도 및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	
지역 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을 활용한 소득 창출	
	체험·레저관광	-체험·레저관광을 통한 소득 창출	
	농업기계화	-농업의 생산, 경영환경을 개선	
지역 경관개선	경관	-지역 불량 경관개선 및 경관 조성	
	생태	-지역 생태 복원 및 정비	
지역 역량강화	역량부분	교육,훈련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홍보	-축제, 정보화를 통한 홍보
		지역활성화	-지역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부분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등의 기타 제반 비용
		사후지원	-사업 이후 운영, 관리에 대한 지원비용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4가지 기능별 사업 중 중요도 평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4가지 기능별 사업인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기초생활기반확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역소득증대	
2	기초생활기반확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역경관개선	
3	기초생활기반확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역역량강화	
4	지역소득증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역경관개선	
5	지역소득증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역역량강화	
6	지역경관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역역량강화	

2. 기초생활기반확충 세부사업별 중요도 평가

◎ 기초생활기반확충의 세부사업을 기능별로 편의성개선(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시설 확충), 환경개선(지역의 주거, 수질, 친환경 시설 설치·활용), SOC정비(안전, 재해, 도로, 상하수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7	편의성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환경개선	
8	편의성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SOC정비	
9	환경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SOC정비	

2-1. 기초생활기반확충(편의성 개선) 세부사업별 중요도 평가

◎ 기초생활기반확충(편의성 개선)의 세부사업별로 문화, 복지, 전통시장 정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문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복지	
11	문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전통시장정비	
12	복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전통시장정비	

